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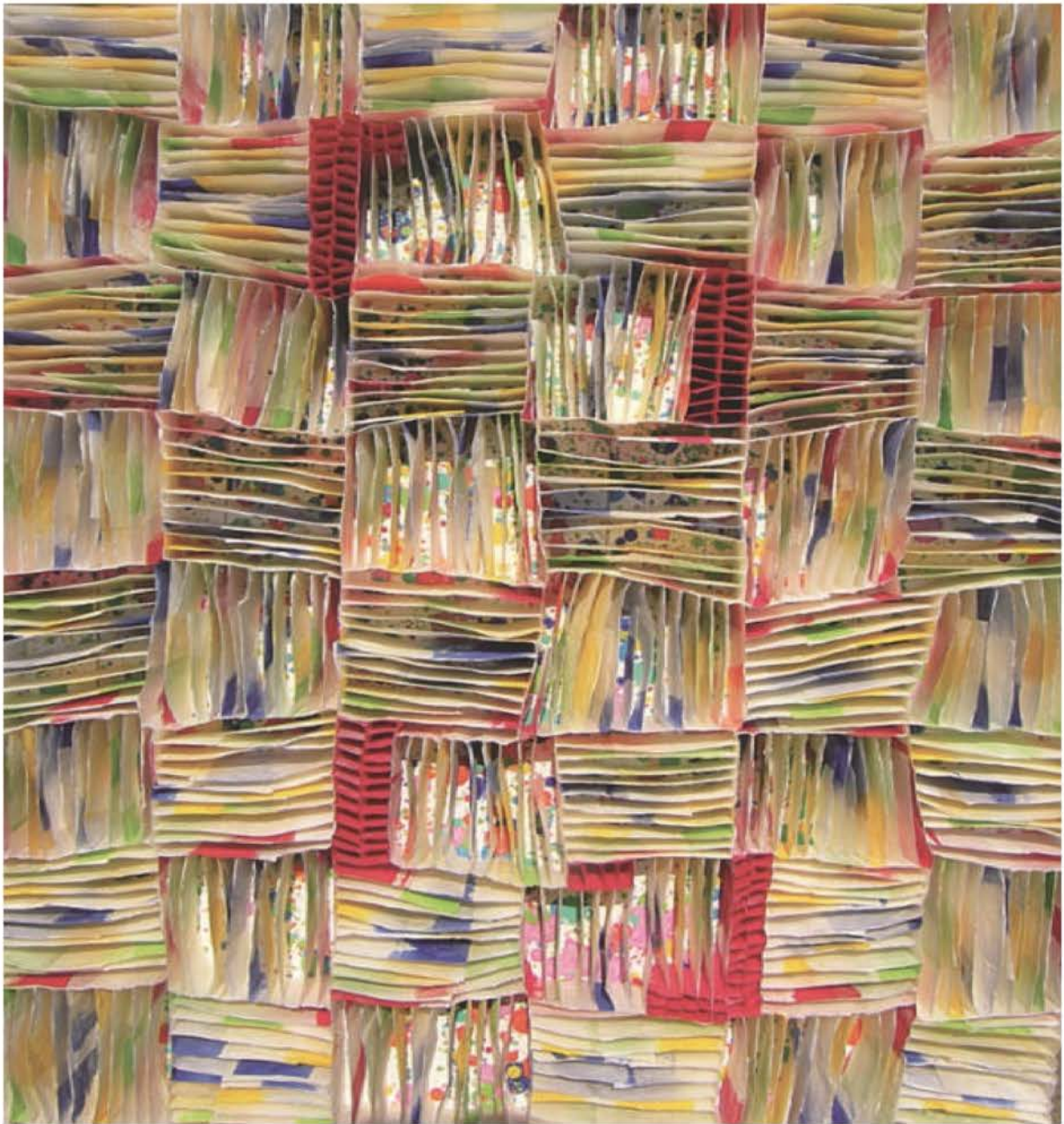


개교 1906

제63호 2018. 4

報會同聖啓

교훈 :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계성중 · 고등학교총동창회

삼익THK(주) 가족회사

www.SAMICKCMI.com

세상을 위한 디지털 이미지 사람을 위한 감동 커뮤니케이션

HUMAN CREATOR  삼익CMI

대표 | 진영국 (60회, 대구광역시 파크골프협회장)



■ 주요사업

CF/R-CM

TV광고, 라디오 광고, 스크린 광고 제작

홍보영상물

기업, 관공서, 병원, 학교 등 홍보 영상물 및 캠페인 제작

방송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 현장리포터, 다큐멘터리 등 각종 방송프로그램 제작

영상자서전

인물 다큐멘터리, 추모영상, 가족 다큐멘터리 등 제작

각종행사물

무대 촬영 및 중계, 행사에 필요한 자료 영상 제작

영상교재

교육용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258 동인빌딩 4층
Tel. 053)252-0035 Fax. 053)254-0210



제19회 섬유의 날
銀塔산업훈장 수상

"계성총동창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會長 李時源

(50회·전 재경동창회장)

21세기 첨단 패션소재 기술의 리더 富泉

부천은 아웃도어·스포츠웨어용 각종 고성능성 원단을 생산하여
국내외 유명 브랜드에 공급하는 기능성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株式會社 富泉

영 업 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11길 32 송현빌딩
아산공장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옹리 123-1

Tel : (02)2189-7500 Fax : (02)756-8031
Tel : (041)531-5777 Fax : (041)531-0595



당신이 늘 쓰는 것이기에

우수한 화장품을 만드는 기준, CGMP
대한민국 최초 CGMP 1·2호 인증 획득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화장품,
한 걸음씩 우직하게 내딛는 우보천리의 정신으로
한국콜마가 만들어 갑니다.

nepes

대표이사 이 병 구
(53회 / 전, 총동창회장)

LED조명은 네패스엘이디

첨단 반도체에서 축적된 기술로 조명에서도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눈부심없고, 부드러운 빛으로 건강을 생각한 조명

우수한 광효율(150lm/W)로 전기료 절감률이 높은 조명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디자인 조명



눈부심이 적고 부드러운 조명

실내조명

- 사무실, 마트, 학교
- 병원, 일반주택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조명

- 고천정 공장등
- 건물외벽 및 전방 감시용 투광등
- 주요소 캐노피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각환경을 위한

도로조명

- 주택가 보안등
- 도로 가로등



자외선 차단,
BLUE 파장 최소화

건강조명

- 병원 개인용 건강조명
- 반도체 라인

제품문의 02-3470-2871 | parktd@nepes.co.kr | www.nepesled.co.kr

서울캠퍼스: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15 서초하임빌딩 왜관캠퍼스: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7길 15-8



덕영치과병원 연수원

오류솔비치



이 재 윤 (56회) 총동창회장



객실 내부



객실(복층) 내부



객실(단체실) 내부 (30명이상 수용)



식당 및 세미나실 (100명이상 수용)



주차장



연수원 앞 바다

본관 1층 카페, 컴퓨터실 및 세미나실 2층 9개의 객실

별관 3개의 복층실과 4개의 객실(별관 전 객실 제트스파 제공)

감포 오류 해수욕장 200m 우측편

조용하고 경치와 공기가 좋은 위치

3好 ① 청정해역 ② 아름다운 해경 ③ 조용하고 맑은 공기

문의 및 예약안내

T. 053-420-2616(성재호) / 010-2111-9848(연수원장)



누구도 이끌지 않지만
시대는 그를 따른다.

The New S-Class
Feel Intelligent Drive

중앙모터스주식회사

이사 이 병 호 (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50

TEL. 053-629-9000 FAX. 053-623-6700

Mobile : 010-3532-4222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CONTENTS



지물 (80×120cm) / 한지, 아크릴



서양화가 송 광 익 (54회)

계명대학교 미술학과 동 대학원 미술교육학과
일본 규슈산업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졸업

■ 개인전

2015 갤러리신라Hall A
후지화랑 (일본, 오사카) 외

■ 수상내역

금북문화상, 일본 북규슈 Biennale 수상 외

- 8 **발간사** 총동창회장 이재운
- 10 **축사** 모교 교장 현창용
- 12 **권두칼럼** 장기홍(39회)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14 **리뷰** 2018년 계성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개교 111주년 계성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

- 23 **지상화랑** 시화(춘신) / 서정호(46회)
Time - Space Flower / 권별(75회)
- 25 **총동창회 소식**

자랑스런 계성인상 / 김상태(58회)
2017년 체육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이재운 총동창회장 장학금 기탁
자문, 고문단, 회장단 연석회의
제3회 계성가족 한마음 트래킹



啓聖同窓會報

개교 112주년
(2018년 4월, 제63호)

인쇄일 : 2018년 3월 30일 / 발행일 : 2018년 4월 3일 / 발행인 이재운 / 편집인 오달현 / 인쇄인 이창호

발행처 : 계성중·고등학교 총동창회(대구시 중구 달성로 37, 811호) / T.053)255-3900 F.053)256-4942 E.keisung1906@hanmail.net

인쇄처 : 주식회사 대원당(대구시 중구 남산동 232-8 / T. 053)257-5460 F. 053)257-5431)



- 28 제21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축구대회
제24회 총동창회장배 바둑대회
제25회 총동창회장배 기수별 테니스대회
계성학교 총동창회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
동산 신태식 박사(18회) 흉상 제막식
故 김태동 계성학원 이사장 장례식
- 32 초대석 박우동(56회) (주)풍산금속 대표이사
- 34 동문동정
- 42 이색탐방 한탁근(51회)
- 44 차한잔을 나누며 강구정(63회)
- 46 특집 졸업 60주년 기념 모교 방문 / 44회 동기회
- 48 기별소식
- 68 지부소식
- 74 회고담 계성산우회 20돌을 맞이하다. / 이인직(60회)
- 75 50계단 ① 민선구청장 3선을 마치며 / 임병헌(60회)
76 ② 핀란드에서 찾은 '강아지 똥' / 김희섭(64회)
78 ③ 계성의 정신은 관계이다. / 성기선(69회)
- 80 동호회소식
- 84 신간소개 『설리화야, 설리화야』
『啓星人』 제17호
- 86 졸업회고 주태민(105회 졸업) / 학생회장
- 88 모교소식
- 92 장학금 및 회보 구독료 납부현황 및 경조사 안내



그 역사, 그 이름 名不虛傳! 계성인이 된 것을 감사하며...



이 재 윤 (56회, 총동창회장)

계성동창회보가 새봄을 맞아 출간됩니다.

멀리 LA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문들이 생생히 활동하는 힘찬 모습을 보느라면 名不虛傳! 그 역사, 그 이름 그대로 헛되지 않았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또 이 회보에 소개되지 않은 많은 분들의 활동은 이 루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창회에 잘 나오지 못해도 동창회 소식에 귀를 쫓 굿하게 새우고 동문들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흐뭇해 할 것입니다.

친구

세상이 모두들
나를 욕해도
날 칭찬해 줄
한 사람이 있다

세상이 모두 다
날 칭찬해도
나에겐 꾸짖어 줄
한 친구가 있다

변하는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내 가슴에 소중한
장미 한 송이 있다

등 너머로 자랑스러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앞을 볼 때 물랐던
하나 돌아보면
마주 대하는
아, 친구여!

[이재윤 시집 『비소리』 중에서]



동행

친한 친구의 기쁜 일에
박수를 치면서 함께 웃어줬다.
친한 친구의 슬픈 일에
눈물을 흘리며 같이 울어줬다.
다른 말은 생각나지 않는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부모와 고향, 모교와 동문들을
함께 만나며 아름다운 과거를 되새김 하는 것이 진정
되고 행복으로 접어드는 길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동지사랑으로 불러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잊어버리고 남들과 타향에서만
산다면 바닷가재가 소금기를 그리는 그 간절한 그리움
을 어찌 견딜까요?

과거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은 한 번 더 사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 속에서 감사함을 모르
고 애써 외면한다고 마음의 평화가 올까요?

나는 계성의 동문이 된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살자고 다짐해봅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지·덕·체를 갖춘 세계인을 양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성인이 되도록



현 창 용 (모교 교장)

계성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3년부터 과학교사(물리)로 시작으로 현재까지 근무해오다가 올해 3월 1일부로 계성고등학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학교장이란 업무를 감당하기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성교육가족의 도와주심을 믿기에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06년 아담스 선교사가 계성학교를 개교하면서 꿈꿨던 것은 '이 학교를 통해 영성과 지·덕·체를 갖춘 세계인을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 110년의 계성교육을 관통하는 교육의 방향성이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야 할 계성교육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로 전환한 것도 이 비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자사고로서의 계성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독교 신앙인이면서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해 놀라운 교육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대입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3명, 연세대학교 9명, 고려대학교 14명, 서강대 10명, 성균관대학교 16명, 한양대 7명 등 서울주요대학 합격자가 160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이렇게 실적이 좋은 데에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각 대학에 입학 후 학업과 생활면에서 탁월한 면이 후배들 대입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7학년도 과학경진대회실적우수교', 'DGB 독도 골든벨' 3년 연속 우승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체육 분야에서도 '전국체전 유도대회 개인전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역시 계성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교! 학 생활동이 활발한 학교! 운동 잘하는 학교!'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2018학년도에는 계성학교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가 있습니다. 2017년 말에 자사고 관련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까지 일반고보

다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자사고 정책의 변동으로 인해서 학교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10년을 지내오는 동안 계성학교 앞에 놓였던 여러 가지 위기들도 잘 극복해 왔듯이 이 문제 또한 잘 극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모두는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도 모교인 계성학교가 이 위기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삼한사온이라는 말은 온데 간 데 없고, 한 달 내내 추웠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추우면 그해 풍년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올 추위가 계성동문 여러분과 계성학교의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영원한 교훈

장 기 홍 (39회)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계성학교에서 우리는 예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그 일을 감사한다. 온 세상이 점점 더 지독한 싸움판이 되고 있는 이때에 예수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날이 더 귀중하다. “서로 사랑하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 기도하시오.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오. 왼뺨을 치거든 오른 뺨마저 대시오.” 이러한 무저항과 사랑을 그는 거듭 거듭 간곡하게 교훈으로 남기었으니 참으로 독보적인 선지자시다. 우리는 소년 때 그런 예수에 더 가까이 되었음을 감사한다. 나이 들수록 그 영원한 교훈이 귀하게 느껴진다.

온 세상이 자폭테러와 싸움과 자살의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미국은 편협한 대통령이 서고 이북은 핵무기로 무장하여, 우리는 온통 싸움으로 났을 잃을 판이다. 그럴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傳道)할 일이 태산같은 의무로 주어지고 있다. 일찍이 계성동산에서 사랑의 교훈에 접했던 일을 무한한 다행으로 감사하며 이 다행을 전파하고 싶다.

필자는 흔히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은 비현실적인 빈 ‘말’에 불과하지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비평을 들어왔고, 필자 역시 그렇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싸움의 미래와 다가올 파국을 내다볼 때 결국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파국을 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필자는 예수의 사랑을 궁극적(窮極的) 교훈이라 일러본다.

싸움의 현실만 있고 사랑의 이상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찌 되겠는가? 싸우면 이겨야 하고 이기자면 죽도록 싸우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통 싸움과 살상으로 끝이 없게 마련이다. 약소민족마다 대량학살의 대상임은 역사에서 드러났다. 우리 한민족도 약소민족에 가깝지 않은가? 거기다 우리는 지금 동족끼리 싸우는 형국이 아닌가! 북녘 동포를 사랑해야 하지만 거기 있는 불의(不義)한 정치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것을 응징·규탄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교훈을 불의도 사랑하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불의(不義)하지 않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멸망을 면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 사태도 보라! 미국 대통령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것이라고 말했지만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의에 어긋난다. 자폭테러의 결심을 부추김 밖에는 되지 않는다.

만일 예수 당시와 그 직후, 유대인들이 로마 압정에 인고(忍苦)하고 훗날의 인도(印度)의 간디처럼 무저항으로 대했다라면 예수 사후(死後)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멸망되어 디아스포라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빈자리를 아랍인들이 매워 팔레스타인 문제라는



비극을 잉태시키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AD 70년 로마 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3년 동안 유대인들은 마사다 요새에서 농성한 후 769명이 자결하고, 생존자들은 국토를 떠나 세계 각지로 흩어졌었다.

싸움은 현실이요 사랑은 이상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중용(中庸)일 터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의(義)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있으므로 우리는 불의를 사랑할 수는 없다. 예수와 간곡한 교훈을 현명하게 현실에 적용하여 서로 타협하여 공존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오직 그 길이 있을 뿐이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여 자기중심, 이기심을 극복하여 서로 사랑할 길을 찾아야 한다.

야만인은 싸움으로서만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문명인은 싸움과 사랑 그리고 정의와 불의를 놓고 그 중용을 취할 것이다. 이 세상에 진정한 야만인은 예수의 사랑의 교훈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문제아가 된다. 남경대학살, 아르메니아인(人) 대학살 같은 것은 그러한 야만인들의 짓이다.

한 달포 전 중국에서는 1937년의 일본군에 의한 남경대학살의 80주년 추모행사가 있었다. 그해 12월 13일 남경의 인구 70만 중 30만 명이 살해당하는 변이 일어났다. 왜군 한명이 남경시민 백명의 목을 치는 시합이 있었다니, 참으로 끔찍한 야만이 아니던가! 또 저 1915-16년의 아르메니아인(人) 대(大)학살사건은 터키 청년들이 아르메니아인 집단을 사막으로 내몰아 150만이 병들어 죽을 때까지 행진을 시켰던 일이었다. 그밖에도 무수한 대학살 사건이 땅(영토)을 뺏기 위해서 있어왔다.

한 번도 예수의 사랑의 교훈에 접해본 일이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대개 그 짓을 한다. 그러니 결코 예수

의 사랑을 비현실적이라 말하지 말자. 사랑이라는 영원한 지표(指標) 곧 영원한 인간윤리의 표준에 접해본 사람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찌 보면 낮은 인종(人種)과 같다.

이 사랑의 운동, 사랑의 전파(傳播)는 영원히 고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의 경향을 그대로 두면 싸움과 멸망 밖에는 없고 오직 사랑을 일깨우고 전도함으로서만 세상이 겨우 균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년소녀 때부터 계성동산과 같은 배움터에 몸을 두어 일찍부터 예수의 사랑에 접할 수 있었음은 행운이다.

너무 심각한 말을 많이 했기로 내 나뭇으로 변조한 노래 하나를 읊어 내 사랑을 독자에게 선물로 보낸다.

저 푸른 물결 외치는 거센 바다로 떠나는 배
내 정녕 잊지 못할 청춘을 실은 저 배는 야속하리
날 바닷가에 홀 남겨두고 기어이 가고야 마느냐.

저 수평선을 향하여 떠나가는 배 오! 설운 이별.
내 청춘 보내는 바닷가를 났 없이 거닐며
미친 듯이 울부짖는 고동 소리에
이내 청춘이 가고야 마느냐.

필자는 이 학교 39회 졸업생으로 나이가 80과 90의 중간이 되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멀어지며 떠나가는 청춘을 아쉬움으로 노래해보지만 이내 “이대로가 좋다”는 깨달음도 마련되어 있다.

“이대로가 최선”이라는 철학은 라이프니츠라는 철인이 먼저 말했다. ‘우주 현실은 신(神)의 최선’이라는 라이프니츠의 사상은 필자가 절실히 동감하는 바로서, 아집(我執)을 떨쳐버리면 깨달음이 오는 것이다. 이별에 대한 긍정과 찬미는 내가 보낼 사랑의 선물이다.



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04 장소 : 호텔인터불고 대구 계성학교 총동창회

계성학교 112여 년의 역사는
오롯이 하나님 축복의 증거





2018년도 계성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이 재 윤 (56회)
총동창회장

2018년 계성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가 2018년 1월 4일 대구 인터불고(만촌) 컨벤션홀에서 이재윤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홍의락(60), 추경호(66) 국회의원, 동문 등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동문으로 구성된 밴드 모임인 '계성유음회'의 감미로운 선율이 식전 분위기를 고조시킨 가운데 오달현(69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행사를 시작했다.

이재윤 총동창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계성학교 110여 년의 역사는 오롯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말하고 "올해 무술년 황금의 개띠해에 동문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자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홍의락 동문(국회의원·대구 북을)은 "올해 무술년에는 동문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무리 없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한해가 되자"고 축사했다.

추경호 동문(국회의원·달성군)은 "계성의 정신을 쌓아 올린 선후배에 경의를 표하면서 모교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유철환 모교 교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 소개에 이어 “동문들의 성원에 힘입어 상리동으로 이전된 모교 시설은 전국 수준급”이라며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대학입시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2회 자랑스런 계성인상 및 공로패’도 전달했다. 김상태(58회) 동문에게 자랑스런 계성인상을 수여했고, 아울러 행운의 열쇠(금 1냥)도 증정했다. 김상태 동문은 대구 대표 향토기업인 평화발레오를 경영하면서 모교 발전을 위해 장학기금 1억원을 쾌척했으며, 동문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어 유철환 모교 교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행운의 열쇠도 증정했다.

2017년 결산 보고와 올해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 안도 심의 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정부의 ‘자사고 폐지’와 장학재단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신입생 모집 난관과 학교재정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상리동 벌에... 함성이

개교 111주년 기념 계성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





동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축제 역대 최대로 성황이뤄

개교 111주년 기념 계성동창 가족체육대회가 2017년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상리동 모교에서 이재운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동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다.

화창한 날씨 속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00여 명이 참석 역대 최대의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은 선수입장, 개회선언, 기도,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운 회장은 대회사에서 "계성인의 축제 한마당을 함께 즐기며 웃음 가득한 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공사 다망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역대회장, 원로 선배, 홍의락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행사준비위원 모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OB팀과 YB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벌였고, 줄다리기, 골프어프로치, 바구니 공넣기, 단체줄넘기, 족구, 단체줄넘기, 400M 계주에서 종목별로 우승을 다뤘다.

OB팀 우승은 65회가, YB팀 우승은 75회가 차지했다. 두 팀은 각각 졸업 40주년, 30주년 행사가 예정돼 2018년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날 대회는 시상과 4시 30분 폐회사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를 위해 이재운(56회) 총동창회장 샴푸 700개, 박정호(53회) 동문 자전거 5대, 진영환(52회) 동문 50인치 TV 1대, 이강호(69회) 동문 소주 60box 등을 찬조로 풍성한 대회가 되었다.

화려한 입장식 퍼포먼스

입장식 점수를 참석인원과 퍼포먼스로 채점하자 각 기수들마다 참석 인원 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일부 기수는 따로 경품을 내 걸었다. 61회는 MTB복장과 자전거를 타고 입장해 주목을 받고 화려한 복장과 많은 인원으로 눈길을 끌었다.





2017년도 체육대회 종합성적은 다음과 같다

O.B 종합성적				종목별 성적									
구분	등위	총득점	회	등위	종목	1위	2위	3위	등위	종목	1위	2위	3위
우 승	720점	65회			줄다리기	65회	56회	62회	등반		63회	62회	60회
					골프어프로치	62회	60회	65회					
준우승	465점	63회			공넣기	65회	60회	61회	테니스		61회	64회	63회 65회
					단체줄넘기	63회 65회	-	-					
					제기차기	63회	65회	62회	바둑		63회	64회 65회	66회
3 위	405점	60회		입장식	65회	61회	63회	마라톤					

Y.B 종합성적				종목별 성적									
구분	등위	총득점	회	등위	종목	1위	2위	3위	등위	종목	1위	2위	3위
우 승	670점	75회			줄다리기	75회	69회	72회	등반		70회	71회	69회
					골프어프로치	77회	72회	69회					
준우승	475점	72회			발배구	72회	75회	71회	테니스		75회	73회	71회 78회
					단체줄넘기	75회	73회	76회			바둑	72회	66회
					400m계 주	75회	82회	77회	축구		78회	75회	71회 76회
3 위	390점	77회		입장식	75회	72회	77회	마라톤		71회	72회	78회	

春信

시화 / 徐正鎬 (46회)

寒梅蓓蕾半開時(한매배뢰반개시)
 十里香傳却不遲(십리향전각부지)
 野鳥群飛湖畔上(야조군비호바상)
 農夫乘興剪挑枝(농부승흥전도지)

봄소식

매화꽃 봉오리가 절반쯤 피었는데
 멀리까지 전한 향기 더디지도 않구나.
 새들이 무리지어 호반 위를 날아다니고
 농부는 흥겨워하며 복숭아나무 가지 치네.

서정호

효성여자중학교장, 대구광역시 중등교원서예연구회장,
 송림시서연구회이사 역임.
 한중서예교류전, 대한민국서예대전 입상,
 대구목연회원, 대구경북미술대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
 운해한국화운영위원,
 대한민국팔공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권 별 (권진호), 75회

Time - Space Flower,
100.0 x 80.3 cm,
acrylic on K-Paper (hanji), 2016



「자랑스런 계성인상」



김 상 태 (58회) / 평화발레오 회장

2018년 1월 4일, 자랑스런 계성인상에 김상태(58회) 동문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날 수상하게 되었다. 향토기업인 평화 발레오 회장이기도 한 김 동문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열정적으로 모교와 동창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후배사랑을 본 받고자 이번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번 수상에는 김상태 동문의 해외 출장 관계로 58회 동기회장인 김창곤님이 대리 수상하였다.



2017 체육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2017년 9월 5일 그동안 체육대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 총동창회장의 지시로 동문의 화합과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원활한 체육대회를 준비하고자 "체육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약 2개월 간의 회의와 준비를 통하여 역대 체육대회 최대인원인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치러진 개교 111주년 가족체육대회를 회장 이하 20여명의 준비위원들의 노고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봉사한 준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준비위원장 : 손용식(60회)

부 위원 장 : 김진걸(65회)

부 위원 장 : 강선기(65회)

준비위 총무 : 양명환(70회)

준 비 위 원 : 윤재호(60회) 황규재(63회) 송준석(67회) 김준한(68회) 노규영(71회)

추쌍엽(71회) 이동엽(72회) 이강전(73회) 이효우(75회) 황선관(75회)

서상호(77회) 손중현(77회) 김진하(78회) 신홍범(79회)



이재윤 총동창회장 장학금 기탁 장학금 1억원, 도서, 7년간 모교에 2500여권 기증

2018년 2월 9일 고등학교 105회 졸업식에 참석,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열중하라고 당부하면서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 또한 매달 재학생들을 위해 매월 30권의 책을 7년 동안 기증하여 지금까지 2500여권의 책을 모교에 기증하여 후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자문, 고문단, 회장단 연석회의

2017년 5월 16일 인터불고호텔 레이디스홀에서 총동창회장 주관으로 2017년도 자문, 고문, 회장단 연석회의가 열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교지원과 장학재단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등, 많은 동문들의 질타가 있었다.



제3회 계성가족 한마음 트래킹

2017년 4월 2일 대신동 모교에서 출발하여 250명의 동문가족이 참여하여 경상북도 문경세계에서 가족트래킹 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대구국제마라톤 대회와 겹쳐서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치 못하여 아쉬움을 남겼지만 모든 동문가족들이 힐링하고 돌아온 하루였다.



제21회 총동창회장배 기별축구대회

총동창회 기별축구대회가 2017년 6월 4일 무태 강변구장에서 제21회 총동창회장배 기수별 축구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계성O.B 축구회는 계성축구의 부활과 뿌리가 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개최하였다. 이날 71회부터 82회 동기회까지 140명이 참석하여 각 기수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한 결과 78회 동기회가 우승하여 동창회기를 품에 안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24회 총동창회장배 바둑대회

2017년 5월 14일 범어동 한국기원에서 치러진 제24회 총동창회장배 바둑대회는 김정길 상임부회장의 축사와 이 전기(59회) 기우회장의 인사로 시작하였다. 이날 각 동기회를 대표한 선수들은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바둑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멋지게 뽐냈다. 이날 O.B팀 63회 Y.B팀 72회가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제25회 총동창회장배 기수별 테니스대회

2017년 6월 11일 두류공원 테니스장에서 총동창회장배 테니스대회가 76회 동기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테니스 동호회원의 감소로 인하여 해마다 퇴색 되어가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9개 기수가 참여하여 대회를 빛내어 주었다. 한편 이날 O.B팀 우승은 61회 Y.B팀 우승은 73회가 차지하는 등 내년을 기약하며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한편 2018년도 제26회 대회는 77회 동기회에서 주관하며 많은 동문들의 참여가 대회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



계성총동창회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

2017년 8월 16일 총동창회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가 덕영치과병원 연회실에서 78명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재윤 총동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학재단 경과보고, 체육대회 준비위원 선임, 각 기수별 대진표 추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 졸업 60주년을 맞이한 44회 선배님들이 참석하여 동문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더욱 단합된 동창회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대원당
DAEWONDANG Printing Co., Ltd. Since 1999

“동반 상생을 위해 하는 일”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쇄 · 문화 업계의 상생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대원당은 협력사의 동반자로서
늘 연구하며 최고의 품질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Yes! One-Stop 서비스 [기획 · 디자인 · 출력 · 인쇄 · 후가공]

- **기획 · 편집디자인** | 인력부족으로 디자인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고급인력으로 **기획 · 디자인**을 해드립니다.
- **출력센터** | 씨컬 C.T.P 시스템 / 웹사버 운영으로 **안정된 출력**, Digital System, IBM · MAC · PDF 워크플로우 교정 · 편집 · 파일변환 **CP4시스템**으로 완벽한 시스템
- **옵셋인쇄기** | 최신형 5색기 · 4색기 정교한 미쓰비시 옵셋인쇄기로 **최적의 고품질 생산**
- **디지털 POD센터** | 소량주문 가격 품질 작업시간 대원당 **디지털인쇄**에서 바로! 바로! **모두 해결**
- **옵셋표지합판** | 독판 표지 인쇄대비 **30%~40% 절감**
당일 오후 5시까지 접수 익일 교팅후 **오후4시까지 완료**
200g~250g아톰/스노우 국산화 이하 유광/무광 교팅 (단, 오시기공은 문의바람)
- **2공장 후가공시스템** | **무선제본 증철제본** DuPro증철기, Horizon 증철기, GMP 씨컬코팅기, Horizon 무선제본기, Heracles 전자증 제본기, Horizon 접지기, 오시기, 라운드기 등 **가동**
신속하고 정확한 납품 및 사내/외 배송 실시
- **합판접수시스템** | 빠른 배송, 고품질 제품, 다양한 **전국배송가능**
카드결제 시스템, 카톡상담 가능



주식회사 大元堂
DAEWONDANG Printing Co., Ltd.
www.dwdpr.com

경리부 · 견적 · 출고문의 | T. 053)257-5430
출력 센터 · 독판 접수 | T. 053)257-8526~8527
독판견적 상담 | T. 053)257-8228
합판 접수 | T. 053)257-1892
디지털 출력 | T. 053)257-5433
기획 · 디자인 | T. 010-7488-5430

F. 053)257-5431

한국 교육의 올바른 좌표 실천 동산 신태식 박사(18회) 흉상제막

1939년 계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1945년 계성중학교 교장, 1949년 계성고등학교 교장, 1962년 계성교육재단 이사장을 맡았으며 오늘날의 명문 계성학교를 만드는 초석을 세우신 동산 신태식 박사의 흉상 제막이 2017년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 모교 교정에서 거행되었다.

신태식 박사는 1953년 미국과 한국 교회 지도자 및 교육자들과 계명대학 설립을 이끌었으며 1961년 계명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여 오늘의 계명대학교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였으며 퇴임후에도 헌신적인 계성 사랑과 불굴의 자세로 평생 교육자로써의 본분을 다하였다. 특히 이번 흉상 제작은 애뜻한 은사 사랑의 마음을 지닌 김우홍(45회) 화성가스 대표가 제작 협찬했으며 조각은 김익수(45회) 영남대 명예교수가 담당했다.

평양숭실전문대학, 일본 동경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 미국 피츠버그 대학원 수학, 미국 캐롤대학 명예법학, 엠포리아 대학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평생을 바쳐 헌신한 계성사랑과 함께 2004년 향년 95세를 일기로 계성 동산 위에 영원히 잠들었다.



故 김태동 계성학원 이사장 장례식 동로, 계성, 신명, 계명 연합 합동으로



2018년 2월 8일(목) 오전 9시 대구 동로교회에서 고 김태동 계성학원 이사장의 장례예식이 동로교회와 계성, 신명, 계명 연합으로 중학교 교목 정봉성 목사의 재례로 거행되었다.

동로교회 정순모 원로 목사의 '복된죽음'이란 말씀과 유철환 모교 교장의 조사에 이어 축도, 헌화가 있었으며 장지인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선영으로 운구되어 권동호 동로교회 부목사의 제례로 하관예식이 있었다.

고 김태동 이사장은 1959년 4월 모교에 부임. 그 후 교감(1988), 교장(1993)을 역임했으며 2006년부터 계성학원 재단이사장을 맡으면서 상리동 모교 이전공사를 마무리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전숙자 동로교회 권사와 1남 3녀가 있다.

도전과 개척의 계성 100년 정신으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자주국방 개척의 길에 동참



박 우 동 (56회) / (주)풍산 대표이사

2019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풍산그룹은 지난 1월 그룹 임원인사를 통해 박우동(56회) 풍산 방산 총괄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박 사장은 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풍산 공채 1기로 입사한 이래 41년간 줄곧 한 회사에 근무해 왔다.

- 입사당시를 소개해 주시지요.

“나는 1975년 학군장교 복무를 마치고, 전공과 화학 장교로써의 경험 덕분에 탄약의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구축 프로젝트를 맡으며 풍산에서의 첫 발을 내디뎠던 것이 1976년 6월이었습니다.”

- ‘풍산’하면 방위산업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와 자주국방 개척의 길에 앞장서 온 우리 회사는 1960년대 창업주인 류찬우 사장님이 국내투자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1968년 국내 최초의 비철금속 전문 회사인 ‘豊山金屬株式會社’를 설립하고 경기 부평에 최초의 伸銅공장을 지었습니다. 이로써 1968년은 금속공업의 양대축인 철강과 비철금속이 우리 나라에서 태동한 해가 됩니다. 이어 풍산은 1973년 경주 안강에 국내 최초의 탄약 공장인 안강공장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 탄약생산은 어땠습니까?

“풍산은 공장 건립 이듬해인 1974년 M1 소총용 캘리버30 탄약을 국산화하여 첫 군납과 해외 수출을 거의 동시에 성사했고, 3년만에 20밀리 발칸포탄, 60·81밀리 박격포탄과 155밀리 곡사포탄까지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 초창기 고충도 있었겠습니까.

“금속 기계가공 장비인 선반, 프레스, 열처리 설비, 톱기계 등은 일본을 통해 조달하여 초기부터 자체 조업이 가능했지만, 탄약에 필수적인 화약은 장비와 기술을 바로 확보할 수 없어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것이 초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약을 개발하고, 생산설비를 구축하였기에 지금도 현장을 볼때마다 당시에 쏟았던 회사의 모든 자원과 나의 땀이 묻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자동

혁신이 중단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도전과 개척의 원동력을 유지 할 것

도전과 개척의 정신으로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야 자랑스런 계성학교 개교 20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차, 대우의 조신, 금성의 가전에 못지 않게 우리 풍산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방위산업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최근 회사 실적은 어떻습니까?

“2010년부터 품질분임조 대회와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첫 수상한 이후 8년 연속 수상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방산기술과 국방력을 가진 미국으로 탄약을 수출하고, 세계 60개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방산 수출 7년 연속 1위와 매년 매출에서 30%이상을 수출에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경영철학 같은 것이 있다면?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혁신이 중단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도전과 개척의 원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단하는 순간부터 내리막을 걷는 것이 혁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모교의 100년 역사도 역경을 이겨내고 환경에 적응하는 혁신의 결과 일 것입니다. 일제의 탄압과 6·25전쟁의 포화에도 학교를 지켰던 희생정신, 가난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여 산업화에 기여했던 열정, 그리고 계성의 전통과 학구열을 바탕으로 미래의 계성상이 정립되리라 생각합니다.”

– 계성 재학 시절을 추억한다면?

“생각해보면 나라의 안보와 경제도, 개인의 생활도 어렵던 1960년대였지만, 우리에게엔 50계단을 오르내리고 아담스관의 붉은 벽돌과 헨더슨관의 덩굴의 품안

에서 청운의 꿈을 품고 학업에 매진하던 계성 학창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파괴된 국토를 복구하고,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자립경제의 기반을 차근차근 쌓아가던 때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건대 먼 한국땅을 찾아 모교를 세워 복음과 신학문의 씨앗을 뿌렸던 아담스 목사의 개척 정신과, 풍산을 세워 한국 방위산업의 기틀을 세웠던 창업주의 도전 정신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으며, 나 자신이 그 두 도전과 개척의 역사현장을 함께 겪은 것은 그저 우연만은 아니며 또한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 모교와 동창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계성인들은 지금 국내외 방방곡곡에서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만들어 인간, 국가,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5G 정보통신,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친환경·자율주행 자동차 등 현대사회는 실재없이 변화하고 고도화하고 있지만, 우리 계성인들은 변하지 않는 도전과 개척의 정신으로 이 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학중이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후배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여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 자랑스런 계성학교 개교 20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 한해 모든 동문들과 학교의 교사, 교원 및 재학생들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회사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리. 오달현(69회) 사무총장 〉



계성중·고등학교는
여러분이 있어 자랑스롭습니다.

동문동정

박연탁(50회), 담수회 30대 회장에 재선출



박연탁(50회) (사)담수회 회장은 2017년 7월 15일 오전 담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도 제2차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30대 회장에 재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또한 2017년 8월 28일 담수회관에서 전통예절교육 강사 요원 2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통예절봉사단(단장 조옥성)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 전통예절교육 전담 단체로 지정되어, 9월 13일 달성중을 시작으로 대구 시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관례와 계례, 인사예절 지도를 하게 된다.

진영환(52회), 대구상의회장 세계상의총회 참석



진영환(52회)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2017년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상공회의소 총회(WCC)'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제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국제분쟁 및 테러에 대한 기업 대응과 세계경제의 미래 등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진 동문은 본 총회에서 세계 경제 현안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상공회의소 역할 등의 모색과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의 교류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WCC는 2년마다 세계 각국에서 열리고 있으며 110여 개국에서 1천여 명의 상공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됐다.

전경태(53회) 교수, DG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DGB금융지주는 2017년 3월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전경태 계명대 명예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의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 사외이사는 1980년부터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2010년부터 3년간 도정 자문 역할기구인 경상북도 미래경북전략위원회 투자통상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1년

에 출범한 DGB사회공헌재단은 교육, 장학 등 후원사업과 꿈나무교육사업, 파랑새드림아동센터 등 시설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홍호용(53회) 리조트 스파벨리 회장 ‘웰니스관광 25선’에 선정



홍호용(53회) 동문이 대표로 있는 리조트 스파벨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웰니스관광 25선’에 선정됐다. ‘웰니스관광’은 건강 증진과 힐링(치유)을 목적으로 스파와 휴양, 뷰티(미용),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 분야이다.

리조트 스파벨리는 온천수 워터파크와 교감형 동식물원 네이처파크, 편백나무와 황토벽돌로 지은 숲 속 숙박시설인 호텔드포레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숲 체험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홍호용 리조트 스파벨리 회장은 “스파벨리가 대구경북의 테마파크 가운데 유일하게 웰니스관광 25선에 선정됐다. 앞으로 특색 있는 시설을 더 만들고 알찬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스파벨리를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리조트 스파벨리는 문화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대구 경북 테마파크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신재학(53회) 경상북도 새마을 회장



근대사에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농업근대화와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 운동이 건인차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모두 함께 잘 살자”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슈바이처가 되고 싶어 고향 인근에 병원을 개업 한 바 있는 신재학(53회) 동문은 “두려워 가지 못한 이복에 〈새마을〉이름으로 가는 날을 꿈꾸고 있다. 신 동문이 새마을과 인연을 맺은 것은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권유로 시작되었으며 나라의 운명을 바

꾸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일은 고귀하기만 하다.

김계웅(54회) 목사, 인도 선교사 방송활동



김계웅(54회) 선교사와 그의 아내 오금희 선교사는 함께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현지에서 활발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CBS의 2017선교 후원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더 미션〉에 김계웅 선교사 부부의 활동 내용이 지난 11월 방송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김진도(55회) 대한유도회장, 국제유도연맹 정기총회 참석



김진도(55회, (주)기풍 대표이사) 대한유도회 회장은 2017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 정기총회 및 2017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김 동문은 2년마다 열리는 이번 정기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까지 임기를 수행할 국제유도연맹 회장과 임원 선출 등에 나섰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국제대회에 적용할 경기 규정 및 심판 규정 개정 관련 논의도 진행되었다.

김 동문은 “글로벌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험을 살려 이번 총회에서 한국 유도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한국은 2017 세계선수권대회 남녀 14개 체급에 18명의 선수를 파견했다.

이경태(56회) 회장, 주목서각 회원전



2017년 10월 27일(금) 오후5시부터 10월 31일(화)까지 대구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주목 서각회원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깊어가는 가을에 서각의 세계로 대구 시민들을 초청, 새로운 세계를 선보였다. 특히 이 전시회를 위해 이경태 회장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

임상규(56회), 경인제약 회장 약사금탑상



2018년 3월 8일, 경인제약 임상규(56회)회장은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약사금탑상(사회봉사부문)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임상규 동문은 심장병 어린이 돕기 무료수술을 비롯해 수재민 돕기 무료투약, 불우청소년 장학금 수여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한때 탈모치료제<그로비스>, 무좀치료제<투진>, 해충박멸제<신기패>등을 출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임상규 동문은 “그동안 제약회사를 경영하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항상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봉사를 놓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사회봉사와 이웃사랑에 바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임 회장은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 대한약사회 중앙이사, 서울시 보건협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포장(1987), 대통령 표창(1996), 국민훈장 동백장(1999)을 수상한 바 있다.

금춘수(58회),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장 부회장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골든벨상사(현 한화 무역부문)에 입사해 38년째 한화그룹에 몸담고 있다.

한화그룹 초대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한 뒤 한화차이나 CEO를 맡았다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장으로 복귀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경험이 풍부해 글로벌 감각이 뛰어나고 해외영업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또한 앞으로 한화그룹의 후계구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 동문은 1987년 한화수입개발 사업팀장을 맡았고 1988년부터 1995년까지 한화부산지점 지점장을 역임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한화 유럽법인 대표이사를 지냈다. 2000년부터 한화그룹 유럽본부장을 맡았다.

배선주(59회),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 연임



대구오페라하우스 이사회(이사장 권영진 대구시장)는 2017년 8월 2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배 선주(59회)에 대한 재선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선주 동문은 계명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공연기획사

대표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2003년 대구오페라하우스 개관 당시 (사)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을 지냈고, 수성아트피아 관장(2009),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2013)을 역임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이사회 측은 “배선주 대표는 재임 기간 다양한 기획공연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서 “직원 화합을 통해 조직력을 크게 높이고 지역의 관계기관 및 예술인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오페라하우스의 대내외적 위상을 정립한 점이 돋보였다”고 전했다.

이강일(61회) 교수, 계명심포닉밴드 지휘



이강일(61회) 계명대 음악공연예술대학 교수는 2017년 11월 10일 오후 7시 30분 계명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계명대 계명예술단(단장 김용일) 계명심포닉밴드의 제28회 정기연주회에서 지휘를 맡았다. 계명심포닉밴드는 창단 후 30년 가까이 각종 국내외 연주회와 공연을 통해 지역 최고의 관악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이 교수의 지휘로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심포니와 바하에서 바그너까지 독일 음악의 정수들을 들려주었다.

이강일 교수는 2017년 11월 10일 오후 7시 30분 계명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계명대 계명예술단(단장 김용일) 계명심포닉밴드의 제28회 정기연주회에서 지휘를 맡았다. 계명심포닉밴드는 창단 후 30년 가까이 각종 국내외 연주회와 공연을 통해 지역 최고의 관악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이 교수의 지휘로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심포니와 바하에서 바그너까지 독일 음악의 정수들을 들려주었다.

임영균(61회) 사진작가, 백남준 인물사진 특강



임영균(61회) 동문이 28일 대구예술대 교육관에서 '백남준 인물사진 특강'을 가졌다.

대구예술대 초청으로 이번 특강에 나서는 임 동문은 1980년대 뉴욕 윌슨시절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 백남

준을 만나서 20여 년간 인물사진과 공연사진을 등을 촬영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으며, 그가 촬영한 백남준 인물사진은 1984년 1월 1일 뉴욕타임즈에 발표되었고 무어먼과 함께한 첼로 퍼포먼스 사진은 영국 대영박물관에 전시되었으며 20세기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사진 중의 하나이다.

중앙대 사진학과 및 미국 뉴욕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한 임영균 동문은 1985년 전 미주 10대사진가상을 받았고 뉴욕현대미술관 등 세계 주요미술관에 사진작품과 작품집이 소장되어 있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초대작가로 선정되었다.

김태한(62회),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삼성그룹의 새 성장 동력인 바이오 제약 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태한(62회)동문은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그룹의 최초 소재산업기업인 제일합섬(현 도레이케미칼)에 입사했으며 삼성그룹 비서실 부장과 삼성종합화학 부장을 거쳐 삼성토탈 전무, 삼성전자 부사장을 역임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출범과 함께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약품위탁생산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경영능력을 보여줬으며 출범 이후 계속된 영업손실에서 벗어나 흑자전환의 청신호를 켜고 있다. 삼성그룹에서 대표적인 기획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 80년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IT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해 우리나라가 현재 IT 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만큼 바이오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바이오복합단지 등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유치해서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2017년 6월 미국 샌디에이고 ‘2017 바이오인터네셔널컨벤션’에서 말한 바 있다.

박은수(62회), 2018년 평창패럴림픽 선수촌장



1980년대부터 향토에서 ‘장애인 복지의 선구자’란 말을 들어왔던 박은수(62회)변호사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2018년3월6일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평창동계 패럴림픽의 선수촌장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동계올림픽에 이어 49개국 선수단의 입촌식을 주관하고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여 선수들 개개인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금까지 올림픽 촌장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위주로 임명되었음에 비해 박은수 촌장의 임명은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장애인 스포츠 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린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였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1989년 대구 불런티어센터에서 2004년부터 4년간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2014년부터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9월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 휠체어 컬링팀을 만들기도 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장애인이란 이유로 법관 임용에서 탈락하자 사법부의 부당한 처사를 언론 등에 호소, 1983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으며 마산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5년간 판사생활을 정리하고 1988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과 서울중앙지법시민 시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필집으로 <나는 눈물나는 해피엔딩이 좋다>등이 있다.

박병열(64회), 한화역사 대표이사 내정



한화그룹이 2017년 11월 17일 2018년도 사업계획의 초기 수립을 위한 계열단 사장단 인사와 승진인사를 실시했는데, 한화역사 대표이사로 한화건설 재무실장을 맡았던 박병열(64회)동문이 내정됐다.

한화역사 대표이사에 내정된 박병열 동문은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실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서강대 경영학을 나와 1982년 11월 한화에 입사했다. 이후 2002년 한화건설 재경팀장, 2009년 한화건설 재무실장, 2015년 한화건설 경영전략 본부장, 2016년 한화건설 재경본부장, 2017년 한화건설 재무실장 등을 맡았다.

한덕기(64회) 동문, 세무법인 대성 개업



한덕기(64회) 전 서초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협조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7년 7월 테헤란로에 세무법인 <대성>의 문을 열었다.

한덕기 동문은 그동안 서부산세무서, 국세청 전산실, 남대문세무서, 서울청 세원관리과, 중부세무서를 거쳐, 군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팀장,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1과장, 서울청 조사4국 팀장(서기관)을 지냈고 구미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을 역임했다.

손병갑(64회) 동문, 국제로타리3700 신임 총재



“임기내 회원 1천여명 더 확보·개도국 글로벌 봉사 10회 진행을 목표로 대구지구 97개 클럽 3천여 명의 로타리안들이 ‘초아의 봉사 정신’으로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국제로타리3700지구 손병갑(64회) 신임 총재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대구지구를 이끌게 된다. 손 동문은 올해 국제로타리 테마인 ‘로타리, 변화를 만들자’를 선포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구 11개 지역 순방에 들어간 손 동문은 임기 동안 신생 클럽 10개를 조직해 전체 회원 4천 명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손 동문은 취임 기념사업으로 지난달 동산병원에서 선천성 얼굴기형을 앓고 있는 베트남 두 소녀 우옌(9), 띠옌(7) 양에게 사비 2천만원을 들여 얼굴 복원수술을 지원한 것을

가장 보람있게 여기고 있다. “인류에 대한 봉사는 로타리인들의 책무입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확고한 봉사 정신과 열정으로 지구촌 어디든 찾아갈 것입니다.”

손 동문은 올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봉사사업을 10회 정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베트남, 라오스, 대만, 인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수질 개선, 문맹 퇴치, 기아 해결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국제로타리 권장사업인 ‘나무 한 그루 심기’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로타리 식수 공원이 조성된 낙동강 강정고령보 주변에 전 회원들이 참여해 나무심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조경래(67회), 경북 청소년수련원 수련부장 대통령 국민 훈장 포상



조경래 (67회)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 수련부장이 2017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다. 1992년부터 구미청소년수련소 청소년지도사와 경북청소년수련원 수련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동문은 청소년 육구에 맞는 다양화·개별화·특성화된 체험 위주 수련활동 진행을 위해 챌린지 32개 코스, 레인저 10개 코스, 짚라인 6개 코스, 수상 활동, 서바이벌 게임 등 체력증진 활동 영역과 문화예술, 과학정보, 전통문화, 자아 개발, 보건안전, 놀이 문화 활동 영역 등 50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왔다.

임춘삼(67회) 동문, (주)경성화인캠 대표이사



기능성 자동차용 핫멜트필름 및 특수필름의 선도기업 이랄 수 있는 (주)경성화인캠의 임춘삼(67회)대표는 최근 주력업종인 연성회로기관에 사용되는 신형소재인 ‘이형필름’등 자동차용 핫멜트 필름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02년 경성화학을 모태로 그동안 발전을 계속하여 2013년 4월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테크노대로70)에 경성화인캠을 설립 강소기업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7건의 특허등록을 소지하고 있고 ISO9001 및 벤처기업 등록하고 있는 경성화인켐의 임 동문은 중요 거래처인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르노 삼성자동차 등 개발품목을 더욱 확장하여 특히 기술 선도를 통한 비전 달성을 꿈꾸고 있다.

김일수(68회) 소장, 육군종합행정학교장 취임



2018년 2월 5일 교육사령관(제갈용준 중장) 주관으로 육군종합행정학교 대강당에서 지역 지자체장, 협력 단체장, 인접부대 지휘관 및 종행교 장병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장 이·취임식에서 김일수(68회) 동문이 육군종합 행정 학교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김일수 소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3군사령부 인사처장, 제51보병사단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역임했으며 취임사에서 "현용전력을 극대화하고 미래전력을 창출하는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영(68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프랜차이즈 시장이 연일 떠들썩하다. 이런 상황을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중 한 명이 올 2018년 1월에 취임한 박기영 (68회) 제6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다.

지난 40년간 쌓인 프랜차이즈 산업의 적폐는 물론 인정하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자칫 산업의 순기능까지 훼손할까 우려된다. “연 200조원 매출을 기록하는 삼성전자는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은 100조원 매출로 12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난 7월 18일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에 그랬듯,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자정할 시간을 달라”고 하소연했다.

박기영 동문은 미국 위트워스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워싱턴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손원배(68회) 우암장학회 회장, 장학금 전달



손원배(68회) 우암장학회장은 2017년 9월 7일 대구 달성 강림2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대학생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손동문이 설립한 우암장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지역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이호영(69회), 우리은행 대구·경북지역 본부장



우리은행에 근무중인 이호영(69회) 동문이 2017년 12월 22일 대구·경북지역 본부장으로 승진, 부임하였다.

성기선(69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 선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신임원장으로 성기선(69회)경기도 울곡교육연수원장이 선임됐다.

경남 창령 출신인 성 원장은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졸업, 같은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를 취득했다.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이기도한 성 원장은 교육평균화, 혁신학교 등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진보성향 학자가 평가원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목고 특혜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와 관련해 정부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성연문(69회) 김천의료원 진료처장, 발전기금 기탁



김천의료원 성연문(69회) 동문이 7년 연속으로 김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후학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온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장

학금을 김천대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시작된 '성연문 장학금'이 올해로 7년째 이어져 오고있다.

반용석(69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반용석(반치과 원장)이 경산 6호, 경북 73호 '아너 소사이어티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발표하였다. 반 동문은 지난 18일 반치과에서 신현수 경북모금회 회장, 최영조 경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가입서에 친필로 서명하고 5년 내 1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반 동문은 지난 1994년 경산시 중방동에 지금의 병원을 개업한 이후 십수 년째 경산지역 소외 이웃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경북치과의사회장에 취임한 후에는 경북 50여 개 치과와 함께 '행복한 금니 모아 캠페인'을 펼쳐 1천700여만원의 성금을 경북모금회에 기부하는 등 도내 소외 이웃의 치과 진료비 지원에도 앞장선 바 있다.

박화진(69회) 치안감, 경찰교육원장 취임



2017년 12월 9일 경찰청 치안감 정 기인사에서 박화진 동문이 신임 경찰교육원장에 취임하였다. 박 동문은 경찰대 2기 출신으로 주 인도네시아 경찰주재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 경북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영남문학』 신인 작가상을 수상한 수필가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마음이 따뜻한 경찰이 되고 싶다』, 『답장을 기다리지 않는 편지』 등 다수 수필집이 있다.

이필환(69회), 계명대학교 대학원장 취임



계명대학교 교무처장으로 재직중인 이필환 동문이 2018년 2월 1일부로 현재 보임중인 교무처장과 대학원장으로 발령받아 겸직 근무를 하게 되었다.

정수환(69회), 대경융합산업발전 협회장 취임



지난 2월 20일 라온제나 호텔에서 진행된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에서 정수환(69회) 동문이 제3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대경ACI협회는 중소기업 CEO 모임으로 사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봉사단체이며 이날 취임한 정 동문은 현재 "한국소방기구제작소" 부사장을 맡고 있으며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동창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상구(69회) 동문, 알버트 넬슨 평생공로상 수상



대구가톨릭대학교 바이오메디칼행정실장으로 재직중인 이상구(69회) 동문이 2018년 알버트 넬슨 평생공로상 수상하였다. 이 동문이 수상의 공로상은 마르퀴스 후즈 후 세계 의학, 과학, 인문,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인물을 심사하여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그 중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에게 평생공로상을 수여하는 큰상이다.

김재엽(70회) 교수, 한국 파워 리더 대상 수상



올림픽 유도 영웅 김재엽(70회) 동문 서울대학 경호학과 교수는 2018년 2월 28일 대한민국 파워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전세계에 스포츠 강국으로 국위를 선양한 공적을 인정받아 조성식 대회

장으로부터 <스포츠 국위선양 대상>을 수상했다.

1974년 대구 남산초등학교 4학년때 유도를 처음 시작하였으며, 전국규모대회를 20여차례 석권하였으며 특히 계성고 3학년이던 1982년에는 100연승의 대기록을 세워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1983년 계명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태릉선수촌에 입촌하였으며, 1982년 6월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에서 한국유도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전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한 점도 허용하지 않으며 여유있게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서울 올림픽 직후 은퇴를 선언하고 곧바로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으며, 1992년에 열린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 유도 대표팀 코치로 대회에 참가하였다. 현재 동 서울대학 경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박노우(70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부임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017년 7월 1일 신임 경기지역 본부장에 박노우(70회) 전 중진공 대전지역본부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예천군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경북대학교 영문과 및 경영학, 국방대(안보과정)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0년 중진공에 입사했다. 그는 중진공 기획조정팀장, 인사교육팀장, 진단기획팀장, 중부권본부 경영관리실장, 창의지속경영실장, 기업금융처장을 역임하는 등 중진공의 다양한 기획관리 업무와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안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검 공안2과장과 공안1과장으로 근무했다. 인천지검에서 형사 5부장으로 활동한 뒤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2부장을 맡았다. 수원지검 형사1부장, 원주지청장, 수원지검 2차장을 거쳐 최근까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활약했다.

특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동(73회), 서울대학교수 기술혁신이론 특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이정동 교수가 지난 8월 31일(목) 오후 4시 성명교회에서 기술혁신 이론에 관한 특강을 실시, 주목을 받았다. 이정동 교수의 학술활동을 살펴보면 『공학 기술과 정책』, 『효율성 분석이론』

등 저서와 번역서로 『진화경제이론』을 출판, 에디터로서 2권의 영문책자를 출판했으며 지금까지 100여편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과 100여편의 국내외 학술 발표실적이 있다. 주연구분야는 기술혁신이론, 진화경제이론, 산업동학이론, 공공 기술 정책 및 민간기업의 기술전략, 효율성 분석 등이 있다.

김명수(70회),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부임



2018년 1월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김명수(70회) 동문이 부임했다. 김명수 신임 사무국장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 관리담당관, 행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경북 성주가 고향이며 경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1남 1녀를 두고 있다.

1남 1녀를 두고 있다.

정서진(73회), 영천상공회의소 회장 선출



영천상공회의소 제9대 회장에 정서진(73회 주식회사 화신 대표이사) 동문이 선출되었다. 정 동문은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동창회발전 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정회(71회), 대검과학수사부장 선임



이번에 대검과학수사부장에 선임된 이정회(71회) 신임 검사장은 정통적인 공안검사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으며, 울산지검 공안부장과 대구지검

김재완(75회), “캠코”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지난해 부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본부장에 김재완(75회) 동문이 부임하였다. 김 동문은 올해 지역본부의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목표로 서민금융지원을 꼽으며 지역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주며 행복을위

한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산 사동, 산정호수(巴谷池)에 배 띄우며 자연과 더불어 산다

농사 틈틈이 巴谷桃源에서 미술, 서예, 음악, 한학 즐겨

한 탁 근 (51회)



경산 대신대학교를 조금 지나가면 우측 낮은 언덕 위로 청주한씨 제실인 〈山泉齋〉가 있고 맞은편에 ‘계성 경산지부 쉼터’와 문종석(68회) 동문이 운영하는 (콩누리식당)이 보인다. 거기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3형제바위〉와 大隱山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못 하나가 보이고 하얀집 두개가 못가에 앉아있다. 바로 거기 물이 좋아 못 이름을 〈巴谷池〉라 명명하고 흠과 더불어 유유자적 살고 있는 韓倬根(51회) 동문이 있다.

한탁근 동문은 사동에서 산 하나 넘어 경산역에서 기차로 통학하면서 모교를 졸업, 통학생 생활을 했지만 고려대 법학과를 마치고 10남매의 맏이라, 법조인

으로서의 꿈을 키우지 못하고 공직에 뛰어들어 지난 30여년 간의 내무부 공무원 생활을 마쳤다. 특히 내무부 감사관, 행자부 윤리담당관과 퇴임 바로 전 대구공무원 교육원장을 지냈다.

그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마무리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金鎔泰(41회) 전 총동창회장이 내무부 장관직에 있을 때 많은 덕(?)을 보았으며 좋은 인품의 YT를 가까이 모시게 된 것을 일생의 영광이라고 추억하고 있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대학원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유학경전학과를 마쳤다. 학위논문은 〈丁茶山の 公職倫理思想研究〉였는데 공교롭게도 대학원을 마치자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을 담당, “대통령도 보따리 싸서 신고해야”만 되었던 꾀빨을 한껏 누렸다.

자손대대가 살았고 조상의 산소도 있고 해서 한탁근 동문은 2009년 귀향하여 파곡지 옆에 숨어산다는 생각으로 알미늬와 유리를 제재로 6평짜리 ‘농막’과 조립식 건물 등 2채를 지어 독서와 글씨 쓰기, 그리고 은둔선비였던 할아버지 葛軒公의 전원시를 번역, 출간하는 것을 남은 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집 농막에는 그의 손을 거쳐 나온 미술작품, 서예작품, 갇힌 할아버지 문집, 골동품, 수십개의 붓, 대형 전축과 아날로그 LP판, 부친의 목각작품 등이 6평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다. 고추 상추 돌보다가 흠 문은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들기거나 서울 ‘종로학원’에서 배운 색소폰으로 ‘데니보이’나 박태준의 ‘사우’ 등을 즉흥 연주하여 보는 이를 놀라게 한다.

어릴 때 부터 조가의 사랑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기거하면서 ‘할아버지 벼루에 구멍이 날’ 정도로 글씨 쓰기를 배웠으나 ‘공자사상을 좀 더 알고 싶어’ 20년 전 서예에 입문, 그 사이 장관상, 국전 입상 경북도전초 대작가 등을 거쳐 드디어 2005년 12월, 제9회 대한민국통일서예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가히 서예에서의 정상이었다. 4년 전인가, 서울 가회동성당을 한옥식으로 개축할 때 상량문을 쓰기도 했고 화원유원지에 가면 그가 쓴 ‘화원10경’도 볼 수 있다. “행서, 초서에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인사동에 가면 내가 왕이다”라는 말이 공으로 들리지 않는다.

파곡도원의 4계절 풍경을 그린 작품도 대단했다. 신인풍의 작품이 아니라 중건의 솜씨였다. 2014년에 입문하여 1년 여 사사를 받아가며 붓을 들었는데 지금은 속도를 늦추고 있다.

섹소폰은 2007년 공직에서 물러나고부터 우리 가곡을 좋아하는 취미로 ‘그냥 붙어보고 싶어서’ 시작했다. 특히 취흥이 있을 때 만사를 잊히고 한 곡을 연주하면 어두운 파곡도원을 지나 골짜기로 흘러가는 그 섹소폰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유리집 농막의 한쪽에 자리하고 있는 전축도 대단하다.

1993년 서울에서 구입한 것인데 앰프는 독일제 ‘Quad’, 스피커 ‘Tannoys’와 턴테이블 ‘Thorens’는 스위스 제품이다. 여기에 LP원판 베토벤의 ‘영웅’, ‘전원’을 자연 그대로 재생하면 전신에 전율이 올 정도이다. 모처럼 겪기 어려운 ‘귀호강’을 준다. 이런 음악사랑은 재학시절 임성길 선생님이 대강당에서 베풀어준 ‘음악감상’ 시간이 원인이 되었다.

파곡지는 예전에 자연상태의 못이었는데 관개용으로 그 동안 보수 확장을 거치는 동안 1,000평 넓이의 못이 되었다. 그야말로 山頂湖水였다. 물이 좋아 못가에 살고있는 한탁근 동문은 이 巴谷池가 스코트랜드에 있는 ‘카트리노’, 법정스님이 좋아했던 미국의 ‘윌든’ 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봄기운이 완연한 못은 옥색물빛이 넘쳤고 못둑의 왕버들 나뭇가지의 하얀 땃줄에 하얀 보트 한 척이 매여 있었다. 한탁근 동문이 핀란드에서 공수해 왔다는 <선

박>이었다. ‘올해 해동하고는 처음’이라며 이날 함께 방문한 남기진(51회) 동기와 이종윤(55회) 화백 등 4명을 배에 태우고 찰랑찰랑 잔물결이 이는, 그림 같은 巴谷池를 “보트는 아이 다루듯 살살 헤야” 하며 이리저리 노를 저으며 뱃놀이를 즐겼다. 못 가는 갈대와 연이 또 다른 정경을 보여주었다. 손님 대접치고는 어디 무엇에 비길 수 없는 최상의 대접이었다. 천지도 아니고 백록담도 아닌데 도시 교외 산정에서 뱃놀이라니...

한탁근 동문의 호기는 그뿐 아니었다. 농막 옆 장독대의 향아리 하나의 뚜껑을 열자 <2016년 2월 雪送松酒>라고 먹으로 쓴 한지가 나왔다. 지금부터 2년 전에 담근, 술향 진한 설송송주를 이날 손님 접대를 위해 개봉한 것이었다. 전축의 베토벤도, 피아노 연주도, 그리고 피아노와 섹소폰의 연주는 설송송주의 그 술향을 더욱 진하게 했다.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한탁근 동문은 <詩經>에 나오는 ‘鳶飛戾天 魚躍于淵’-술개가 날아서 하늘에 다다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한다는 말을 늘 생각하고 있다. 이날, 일행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이 巴谷桃源을 한번 더 찾기로 했다. 그 향아리의 크기가 보통이 아니니 雪送松酒가 마른다는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최근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 입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14대 회장 선임



강 구 정 (63회) / 동산의료원 교수

동산의료원 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강구정(63회) 동문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병원에서 그는 복강경 수술과 간담췌장암 및 간이식 수술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특히 강구정 동문은 지난 2017년도에 제14대 한국간담췌외과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국내 및 국제학회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1월 25일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입회하였다. 의학한림원은 기초 및 임상의학분야에서 현저한 업적이 있으면서 학술단체 운영에도 기여한 의학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 보건 의료분야 최고 권위의 석학단체다. 이 기구는 한국의 학진흥과 선진화를 위하여 국민 건강의 향상과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자문의 역할을 하고자 2004년 설립되었으며 400여명의 회원이 분야별 분회로 나누어 조직되어 있다.

외과의사는 내과의사나 마이너과 의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외과의사보다 더 중하고 응급을 요하는 환자

들을 접할 때가 더 많다. 잊지 못할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다. 1980년대 전공의 1년차 때의 일이다. 서른살 건장한 남성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의자에 앉아 일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부풀어 오른채 응급실로 왔다. 얼굴이 창백하고 혈압이 60 mmHg로 쇼크 상태였다. 단순 복부 촬영후 바늘을 복부로 찔러 넣어 피가 고였음을 확인한 후 피를 준비하여 CT 촬영도 하지 않고 곧바로 수술실로 옮겼다. 복부대동맥류 파열이었다. 주먹으로 터진 동맥을 틀어막고 젊은 교수와 과장님까지 밤새 동맥을 갈아끼우는 수술을 잘 마쳐 환자는 아무런 합병증 없이 퇴원한 적이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지금까지 강구정 동문은 두 번의 해외연수 혹은 교환 교수를 통해 미국에서의 경험으로 의술을 배우기도 하고 의학논문을 쓰는 모델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자연환경이나 문화 및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느끼고 배운바가 크다고 말한다.

미국 동남부의 듀크대학에서는 간수술의 기초가 되



는 간손상방지방법 연구 등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이 때 휴가를 내어서 미국의 자연을 가족과 함께 체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동산의료원 선교복지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카자흐스탄과 몽골 및 네팔에, 장로로 시무하고 있는 서현교회에서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의료선교봉사단을 이끌고 다녀오기도 했다. 그때마다 1회성 방문이 아니라 100여 년전 미국 북장로회에서 동산의료원에 의료 선교를 시작하여 지금의 동산의료원으로 우뚝서게 된 것 처럼 동산의료원 모델을 실현하는 일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고 한다.

강구정 동문은 인턴때부터 외과전공의 시절에 잊을 수 없는 환자나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씩 기록으로 남기곤 했다. 그 이후 20여년 동안 특이한 경험들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던 중 일간지 전면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출판사인 민음사에서 “1억원 고료 올해의 논픽션상 원고모집”이란 광고를 보고 그동안 써두었던 글을 정리하여 응모

하였었다. 비록 대상은 아니었지만 생활과 자연 분야에 우수상으로 입상하여 『나는 외과의사다』라는 책으로 출판한 바 있다.(2003, 사이언스 북스)

그는 경북 의성군 시골 마을에서 중학교시절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통불과 남포등 아래서 공부하여 계성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담임 선생님이 대구 출장으로 부재중이어서 옆반 담임선생님께서 공립고등학교에 지원하도록 써준 원서를 받아 교무실을 나서는데 대구에서 막 돌아오신 담임선생님께서 “너는 계성고등학교로 지원하라”며 새로 써주셨다고 한다. 지금까지 계성고등학교에서 많은 지식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문학에 대한 안목과 더불어 정신적 자양분을 섭취하게 된 것은 일생일대에 가장 잘한 선택으로 원서를 바꿔 써주신 중학교 선생님께 지금까지 감사하고 있다.

한동안 뒤쳐졌던 계성고등학교의 위상이 상리동으로 이전 후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여 예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44회 졸업 60주년 기념 모교 방문 100여명의 동기생 부부 참적, 팔순 기념잔치 함께 해

2017년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 계성중·고등 44회 졸업생 부부 95명이 대구 수성구 모식당에 모였다. 서울에서 온 56명과 대구의 39명이 고교 졸업 60주년을 기념하고 몇몇 나이 많은 친구 외에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팔순 기념 잔치를 하기 위해서다.

1시간 30분 예정의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대구시 상리동 와룡산록에 새로 지은 새 학교로 갔다. 35년 전 홈커밍데이 때는 우리가 다닌 대신동 계성고등학교로 갔으나 지난해 신교사가 완공되어 중학교는 대신동에 아직 있고 고등학교는 새 교사로 옮겨졌기에 이리로 온 것이다.

새 학교 본관은 대신동 본관(면류관 건물)을 그대로 옮긴 듯 건물 모양이 꼭 같았다. 면류관 뿐 아니라 계성의 상징, 50계단도 그대로 만들었다.

유철환 교장 등 교직원들의 정성스런 마중을 받았다. 졸업 25주년 홈커밍데이 때는 우리들이 배운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셨으나 지금은 모든 선생님이 우리들보다 한참 젊은 분



들이고 자식뻘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 특히 우리 김병철 동기가 회사한 1천만원으로 세운 강림정 정자는 교사동과 기숙사동 사이 잔디밭에 서 있어 학생들의 좋은 쉼터와 모임 장소가 될 것이다.

와룡산, 용이 누워 있는 산, 그 푸른 정기 속에 내일의 용들이 자라고 있다. 영국의 이튼스쿨과 같은 세계적인 명문 학교가 되어 국가와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인재를 많이 많이 길러낼 것을 기대한다. 같은 마음으로 기념 사진을 찍은 후 신일회 동기가 총장으로 재직하는 계명대학교를 방문, 캠퍼스를 둘러봤다.

경주 더케이호텔에 여장을 풀 후 월지(안압지), 동궁터 등 시내 관광을 한 뒤 세미나실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메인 행사인 <친교의 밤> 행사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김병철 동기가 2천만원을 회사해서 가지게 된 것이라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 동기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인사말이 끝난 뒤 백일현 대구회장이 전 회원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김병철 동기에게 전달했다. 김 동기는 자신이 졸업한 연세대학교에 신라 3

층 석탑을 기증하고 평생 모은 가야 신라 토기 1,800 점을 기증, 연세대 박물관에 그의 호를 딴 강림관 전시실이 따로 있기도 하다.

2부 순서는 조용석 서울 회장의 능란한 사회로 장기자랑과 빙고게임, 행운권 추첨 등 유쾌한 시간을 가지고 계성학교 교가 제창으로 첫날 일정을 마치고 각자 방에서 안식에 들어갔다.

둘째 날은 기상 후 산책, 사우나 등 자유 시간을 가진 후 8시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불국사, 석굴암 등 사적지를 둘러보고 감포로 옮겨 푸점한 회와 일배주로 점심을 먹은 후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울과 대구 귀로에 올랐다.

인생의 가장 푸르던 때의 자랑스러운 추억 위에 계성개교 일백십일년 역사에 처음인 '졸업 60주년 기념 모교 방문'의 새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를 또 하나의 아이টে으로 추억 창고에 갈무리하는 44회는 '보물 같은 추억'이 많은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다.

〈글 박용규(44회), 영남일보논설고문〉



보고싶다
친구야



그 시절 추억을 되새기며 마주하는

기별소식

44회

회장 백일현 총무 김재양

총동창회 동기회 사상 처음으로 <졸업60주년 기념 행사>를 치른 44회 동기회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영남별장에서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백일현 회장의 인사로 정기총회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동기회원들 건강과 60주년 행사 보고 등 화기애애하게 덕담을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차기 동기회장에는 현 백일현 동기가 유임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4월 25일 계성학교 최초로 졸업 60주년 행사를 부부동반으로 상리동 모교에서 가지면서 후배들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과 김병철 동기의 후원으로 정자(강림정) 기증식을 가졌다.



48회

회장 권혁세 총무 이증택

48회는 졸업 55주년 행사를 갖고 부산해운대 동백섬에서 대구, 재경, 재부지역 40여명의 동기생이 모여 우정을 다지고 많은 덕담을 나누고 유익한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2017년 10월 대구에서 모교방문 연합행사를 갖기로 하며 헤어진 이래 약속대로 모교방문 행사를 가졌다.

서울, 부산에서 참석한 동기들과 대구의 동기 65명이 참석하여 유철환 모교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의 환대속에 약 1시간의 학교현황과 설명을 경청하고 새로이 이전한 모교를 둘러보는 행사를 마지막으로 단체사진과 교가 제창을 하는 순서로 마무리 하였다.



50회

회장 김봉호 총무 유수광

2017년 3월 25일 수성구 소재 풍기삼계탕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33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여 새해인사와 안부 등 덕담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는 한편 동�회장에 김봉호 현 회장이 유임되었다.

5월 20일에는 김대곤 동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동기획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33명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히 이재윤(56회) 총동창회장이 축사를 통하여 동�회 발전과 회원들의 건강을 당부하고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10월30일 에는 가을 야유회를 31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 주왕산에서 가지며 한해 행사를 마무리했다.



51회

회장 한민창 총무 최윤희

2017년 12월 23일(토) 오후 6시 시내 중구 (경상 감영길27-14) 에 위치한 동기회 사무실에서 20명의 동기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경과보고, 결산보고에 이어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어 송연희 겸 만찬을 용화루반점에서 가졌으며 이어 7월 8일에는 “동기회사무실” 이전 개소식 행사를 통해 동기회의 발전을 도모했다.

한편 51회 동기회 봄나들이를 6월 6일 동해안 일원에서 가지며 자연을 즐겼는데 한민창 동기 등 12명의 동기가 부부동반 하였고 이석재 등 11명의 동기가 '홀몸'으로 참석하였다. 특히 김병주 동기와 조영희의 부인이 참석하는 등 동기에 정신을 보였다.

취미클럽인 “산우회”(회장 : 허종철, 총무 : 이성희)는 매월 셋째주 일요일마다 전국 명산 투어를 통해 자연을 즐기고 심신을 단련하고 있는데 동기회원 부부 40여 명이 참석하여 우정을 다지고 있다.

52회

회장 서정환 총무 조용복

2017년 정기총회가 12월 13일(수) 12시에 매일신문사 옆 <건강한 집밥>에서 조용복 총무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2018년 동기회 사업은 현 집행부가 한 해 다시 연임하면 좋겠다는 전임 회장단의 의견을 총회에서 추인하였으며 회장 서정환, 부회장은 서상근, 사우회장, 산우회장(이상 3명), 총무 조용복, 재무 김정웅, 감사 구은희 등이 연임되었다.

2017년 수고한 서정환 직전 회장에 대한 공로패 증정이 있었으며, 정기 총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2017년 10월 24일 서 정환 회장이 전직 회장단을 점심식사에 초대한 가운데 동기회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였다.



53회

회장 김대관 총무 배중규

2017년 3월 동기생 26명이 참석하여 춘계야유회를 버섯 마을에서 가진 이래 삼복하계회에 가을잔여회, 추석맞이회 등을 통해 꾸준히 모임을 가지며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문경세제에서 2017년 11월12일 재경지부 합동 산행회를 가졌는데 대구회원 34명, 재경회원 26명 등 70여 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2017년 12월 28일에 치러진 연말총회 및 송년회를 덕영빌딩에서 이재윤(56회) 총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40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했으며 새로운 회장에 김대관 동기를 선출하고 모두 건강을 기원하면서 한해 행사를 마무리했다.



54회

회장 최병연 총무 이승남

2017년 11월 3일 그랜드호텔에서 '졸업50주년 기념 및 합동 교회연' 행사를 '계성 54회 동기회의 밤'이란 주제로 거행하였다.

이 날 전국에서 부부동반 모임에 130여명의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루어 오후 6시부터 10시 반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의 내용으로는 회원의 비용 부담 없이 전액 자체기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자발적인 찬조 금품이 쇄도하여 그 의미를 더 뜻깊게 하였다.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만찬장에서는 동기회 50년을 추억하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를 30분간 동영상으로 시청하였다.

3부 단합대회에는 초청 사물놀이 공연 초청 가수 공연에 이어 김장열 동문의 시조창을 시작으로 허정 동문 부인의 고전무용 발표, 이동수 동문의 가곡 열창, 이상철 동문의 아코디언 연주, 고재목 동문의 하모니카 연주, 동문 부인들로 구성된 목우회의 합



창에 이어 많은 회원들과 동문 부인들의 노래자랑으로 시간을 잊게 하는 열정으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본 행사 사업 중의 하나로 이호수 회장의 착안으로 25년 전 1992년 10월 24일 흙커밍데이 기록 아날로그 VTR TAPE를 DIGITAL FILE로 변환하여 YOUTUBE에 '계성 54회 흙커밍데이 1. 2'로 탑재하였으며 2017년 11월 3일 행사 녹화는 52회 정하룡 동문이 재능기부 및 봉사하여 만들어 준 DVD를 MP4 FILE로 변환하여 YOUTUBE에 '계성 54회 칠순(동영상)과 '계성54회 칠순 이마주(이미지 애니메이션)로 탑재하였다.

본 행사를 주관한 총감독 이호수 회장과 박기창 총무, 손익호 부회장, 유춘주 부회장, 이광준 부회장, 이창동 부회장, 허정 부회장 등이 많은 수고를 했다.



56회

회장 김타열 총무 최돈문

2017년 3월 23일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자금성에서 가지며 동기회장에 김타열 동기, 총무에 최돈문 동기를 선출하면서 한해 행사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 4월 2일에는 문경세계에서 진행된 총동창회 가족 한마음 트레킹대회에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였다.

5월 14일에는 김상원 동기가 운영하는 대가야요양원 신축한옥에서 동기 춘계단합대회를 열어 동기들의 단합을 과시 하기도 했다.

9월 3일 하계야유회로 통영에 위치한 연대도 및 만지도탐방에 39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올해 마지막 행사로 10월 15일 치러진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끝으로 2017년도 동기회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 하였다.



58회

회장 김창곤 총무 정면득·임병옥

2017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이 12월 15일 만촌동 인터불고에서 열렸다. 사회자의 개회선언과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한편 2017년도의 주요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	일시	참석인원	비고
운영위원회	1월 18일	14명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이사회	1월 25일	31명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1차사랑방	3월 7일	30명	4월 22일 저도 야유회 확정
봄 야유회	4월 22일	67명	마산 저도방문(사진첨부)
2차사랑방	6월 23일	25명	친목도모
총동창회체육대회	10월 15일	34명	
한국국학진흥원 체험 연수 및 안동 전통유적지 답사(1박2일)	11월 4~5일	52명	안동전통유적지(화회마을, 안동한지, 봉정사, 도산선원청량산, 법흥사, 안동댐) 및 한국국학진흥원 체험
총회 및 송년의 밤(예정)	12월 15일 18시		만촌동 인터불고 뷔페

한편 산우회, 마라톤회, 선담회, 골프회, 당구회, 당구클럽, 사우회 등의 소모임을 통해 동기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동기회의 활성화에 꾀하고 있다. 특히 산우회와 마라톤회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우회 /매월 첫째 일요일 정기 산행 (회장 김은홍, 총무 김병국)

- 1) 1/8 : 옥수골 산행 17명 참석(신년교류회) - 찬조 김은홍 10만원, 광일섭 신년회식전액(24만원)
- 2) 2/5 : 마미정, 삼필봉 산행 20명 참석
- 3) 6/4 : 가야산 만불상 산행 8명 참석(신재민 하산 주제공)
- 4) 8/6 : 토함산 산행 13명 참석
- 5) 9/3 : 염불암, 낙타봉 산행 11명 참석(김병국, 임병옥 차량 제공)
- 6) 10/8 : 화왕산 산행 13명 참석(김창곤 하산주 제공. 15만원 상당)
- 7) 11/12 : 초례봉 산행 9명 참석(이무영 하산주 제공)
- 8) 12/10 : 형제봉 산행 및 총회 12명 참석(회장 김병국, 총무 강병현)



2. 마라톤회(매주 수요일 정기 모임) : 회장 이재천, 총무 박순익

- 1) 대구마라톤대회 출전(4/2)
 - 10KM : 김은홍, 광일섭, 정종인, 형호경, 정면득, 이상곤
- 2) 달서하프마라톤 출전(9/24) : 이상곤, 김은홍, 정면득, 엄재길
- 3) 춘천마라톤 풀코스 완주(10/29) : 광일섭, 정면득, 이상곤, 엄재길
- 4) 상주마라톤 하프 완주(11/12) : 광일섭, 정면득, 이상곤
- 5) 특별 행사 : 봄소풍 - 4월 6일 창녕 남지 유채축제(13명 참석)
여름여행 - 8월 15일 지리산 뱀사골(13명 참석)



59회

회장

총무 김광재

59회는 동기회장 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산우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동기간의 우정을 나누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22일 팔공산에서 서울, 대구 동기생 40명이 합동산행을 가지고 5월에는 도원지, 삼필봉, 마비정마을을 다녀오는 행사를 가졌으며 7월 22일에는 야간산행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동기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기다린다.



60회

회장 박병진

총무 이진팔

작년까지 호텔에서 식사하고 노래자랑하던 송년회가 무의미하다는 중론을 모아 आयु회를 다녀왔다, 12월 9일 47명의 동기가 참가한 आयु회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울산일대 대나무 숲, 대왕암 공원을 산책하였다, 이날 총회결산보고는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가졌다, 2018년도 새 회장에 박병진 동기가 감사에 권병두, 서해동 동기가 선출되었고 한해를 수고하게 되었다. 이날 आयु회 행사는 서울, 영덕, 경주 등 멀리에서 참석하여준 친구들과 식사비를 찬조하여 준 김윤태 동기, 참석은 못 하였지만 큰 도움을 준 진영국 동기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추억의 동기회 여행에 동참한 모든 동기에게도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61회

회장 양담영 총무 허중식

2017년 6월 18일(일), 1박 2일로 38명의 사내들이 화원자연휴양림 안의 두루미방에 등지를 틀고 하룻밤을 지새우며 동기애를 넘치게 나누었다. 또한 2017년 8월 26일(토)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관광지에 금강이 흐르고 있는 영동에 대구 본부를 비롯 서울 부산 동기생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과 모교사랑 정신을 한껏 나누었다. 이어 11월 8일(수) 37명의 동기들이 주왕산과 주산지를 둘러보며 늦가을의 정취를 눈과 마음으로 즐기며 하루를 함께 하였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2017년도 정기총회를 12월21일 본리동 동기회 사무실에서 4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양담영 신임 회장을 선출하였다. 이날 이임하는 회장과 취임하는 회장에게 격려와 축하를 함께하면서 행사를 마쳤다.



62회

회장 도규호 총무 강창수

2018년 1월 22일 62회 백봉산우회는 백두대간을 비롯한 74봉 등정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백봉산우회 정기총회 및 동춘유원지 야유회 등을 가지며 우정을 다지고 있다.

10월 15일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에 전통과 저력으로 뚝뚝 뭉쳐 온 62회의 많은 동기들이 부부로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어 좋은 시간을 가졌다. 항상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 즐거움은 배가 되었지만 우승은 후배기수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11월 24일 자금성에서 치러진 정기총회에는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여 치러졌으며 동기회장에는 도규호 동기가 유임되어 또 한번의 수고를 맡게 되었다.



63회

회장 이성률 총무 김진도

2017년 1월 동기회 신·구임원 인수인계를 마무리 하면서 동기회 발전을 도모하였고 새롭게 출발 하고자 동기회 홈페이지 수정하였고 이어 첫 이사회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기회 사업계획 발표 및 안건협의를 하였고 매 분기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기회다 올 한해 행사는 많은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리동 신축 모교방문을 마쳤다.

한편, 5월 21일에는 서울, 대전 등 각지에서 달려온 63회 오오등회 행사를 많은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루는 등 동기회 단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어 9월 16일에는 동기단체로 야구경기 관람을 가지는 한편 10월 23일에는 친선당구대회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2월 2일 에는 올해 마지막 결산으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는 100여 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라온제나호텔 아모르 홀에서 가지며 한해 행사를 마감하는 한편 동기회장에는 이성률 동기가 선출되어 한해를 이끌게 되었다.



64회

회장 오근훈 총무 심규일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2017년 동기회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동심각에서 개최하였다. 허인태 동기회장의 송년사를 비롯한 지난 일 년의 회계, 회무 보고와 2018년 동기회장 선출 등의 1부 행사와 만찬과 여흥으로 이어지는 2, 3부 행사가 60여 명의 동기들과 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근훈 동기가 2018년 동기회장으로 선출 되었다. 행운권 추첨과 교가 제창을 마지막 순서로 즐거운 송년회 시간을 보냈으며, 다가오는 무술년에도 모두 건강하고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기원하며 행사를 마쳤다.

한편 2018년 2월 23일 금요일에는 오근훈 동기회장의 신년사와 동기회 예산 및 행사의 승인 감사 선출이 있었고 모두 동기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 64동기회 사무실 개소식 ♣

2018년 3월 17일 오후 3시, 64회 동기회 숙원사업이었던 동기회 사무실이 졸업 40주년을 맞아 개소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20여 명의 동기가 참석, 각종 다과를 준비해서 치러진 이날 개소식은 오근훈 동기회장의 인사말, 손중배 동기의 축하인사를 시작으로 많은 동기들의 박수 속에 진행되었다. 오근훈 동기회장은 앞으로도 많은 동기들의 방문을 기다리며 격려와 성원을 부탁했다.

64회 동기회 사무실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363 법원앞 삼일법무빌딩 5층 501호
(지하철 범어역 하차후 법원방면 도보 5분거리에 위치)



65회

회장 남병헌 총무 김진걸

2018년 졸업 40주년을 앞둔 65회 동기회는 지난 2월 19일 시산제를 마친 후 43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이사회를 가졌다. 또한 4월 20일 역대 동기회 회장단 모임인 "역동회"가 발족되어 동기회 단합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이 지원을 할 것을 협의하였다.

5월 17일에는 49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문경C.C에서 동기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이끌었으며 또한 자전거동호회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10월 개교 111주년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에도 120명이 참석하여 압도적인 성적으로 O.B기수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기쁨도 가졌고 12월 9일에는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을 결산하는 총회를 가지며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수고한 서태교 회장의 이임 인사와 신임 남병헌 동기회장이 선출되었고 또한 총동창회 산우회 장에도 오상달 동기가 선출되어 산우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66회

회장 장용원 총무 이길재·정철훈

1986년에 동기회 결성을 하였고 올해로 졸업39년을 맞이하는 본회는 그동안 전임 장준규 회장의 열정적인 동기회 헌신으로 그동안 좀 소원하여진 동기회를 다시 부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을 동기회 지킴이로 열심히 봉사하여 준 회장단 동기들의 노고에 박수로 보내며 12월 2일 에는 그랜드호텔에서 동기회 정기총회를 가졌고 신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임중인 장용원동기가 2018년도부터 2년간 회장으로 서 봉사하게 되었다. 특히 이날 총회 후 장기자랑 및 행운권 추첨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한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마무리 하였다.



67회

회장 김수봉 총무 김경찬

지난 5월 28일 40여명의 많은 동기가 참석하여 68회 동기회 친선골프대회를 무사히 마쳤으며 올해 새롭게 동기회 활성화 차원에서 윤정희 동기회장의 배려와 도움으로 동기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1월 12일 부부동반 산행과 12월 16일 자금성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동기 회장에 김수봉 동기를 총무에 김경찬 동기를 선출하였다. 2018년에는 많은 참여와 행사를 치루고자 결 의하고 이날 송년회를 마무리 하였다,



68회

회장 손원배 총무 김준한·정영표·최진태

동기회 송년회를 2017년 12월 7일(목) 저녁 7시, 반월당 까르르스타 뷔페에서 가졌다. 식순은 최진태 진행총무의 맛깔나는 사회로 진행된 바, 손원배 회장의 인사, 총동창회 오달현(69회) 사무총장의 축사, 재무 김준한 총무의 현향보고, 학반 다수참가상 지급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모든 이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특히 부부로 참석한 동기들에게는 추가로 경품을 지급하였다. 이어서 연말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는 맛난 음식과 함께 그간의 소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동기에를 나누었다. 특히 집행부에게 송규열, 노홍태 그리고 서영호 동기가 감사의 표시로 각각 꽃과 와인을 선물하며 그 간의 노고를 위로하였기에 더욱 훈훈한 연말 송년회가 되었다.

그간 현 집행부의 노력으로 연회비 납부자 수가 전년도 대비 100% 증가한 만큼 학반별 반창회 결성도 적극 권장하고 있어 2018년엔 더욱 많은 동기가 참여하는 발전된 모습이 기대된다.

또한 평소 참여인원 수의 많은 외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매 행사 때마다 동기에가 한층 돋보이는 모임 분위기를 연출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계성68산우회(회장 : 김덕수, 산대장 : 예광수, 총무 : 박점복)는 2011년 3월 첫 산행 이후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전국 명산을 찾아다니는 결과, 총 81회차 등반 실적을 쌓았으며, 등반 경험이 가져다 주는 오감만족의 즐거움과 체력증진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졸업 36주년 기념으로 추억의 수학여행을 실시하였다. 손원배 회장이 관광버스 1대와 여러 동기들의 기념품 등의 찬조가 있었고, 경북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울진 죽변항-망양정-울진(회,매운탕) 문화탐방 코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동기들의 생업에 지친 심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힐링이 되었다.

지난 8월 12일에는 계성 68 당구동호회도 새로이 조직하며, 동기간에 좀 더 자주 모일 수 있게 건강한 취미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혹 평소 계성 68 동호회 활동에 관심 있는 동기들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란다.

- 계성 68 산우회 : 박점복 (010-3533-2787)
- 계성 68 기우회 : 전익현 (010-3515-6295)
- 계성 68 당구회 : 임현철 (010-8717-6446)
- 계성 68 골프회 : 강호철 (010-9102-7524)



69회

회장 이필환 총무 김원조·박중근·우종식

2017년 2월 24일 대명동 소재 <한국인의 밥상>에서 동기생 31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였다. 허만호 신임 동기회장을 필두로 하여 그동안 동기회장과 총무를 오가며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김원조, 김도균 두 총무를 비롯하여 새로 가세한 박중근 총무가 올 한해를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알렸다. 올해도 한 달에 한번 씩 이어져 오던 전통 그대로 행사를 진행하였고 10월 총동창회 체육대회에는 입상하고자 하는 의지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입장 퍼포먼스를 하였고 그 결과 화합상이라는 결과물을 가졌다. 특히 졸업 35주년을 맞이하여 반 대항 풋살경기와 짜즈바를 임대해 가면무도회를 치른 행사가 동기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는 쾌거도 있었다. 12월에는 한해동안 동기회를 무탈하게 잘 이끌어 준 허만호 동기회장이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필환 동기에게 회장자리 이임하는 행사를 가지며 의미있는 2017년 행사를 마쳤다. 그동안 동기회를 위하여 수고해 준 총무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71회

회장 김호식 총무 노준석

2017년 11월 24일 신천동 송라시장내 상인연합회 회관에서 동기회 송년의 밤을 가졌다.

올해도 동기회회장으로 김호식 동기가 유임한 가운데 지난해의 아쉬움을 털어 버리고 올 한해를 더욱더 알차게 보내고 저 다과와 보양식으로 생고기를 준비해서 파티를 열어 동기생들의 열렬한 관심과 환호속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동기동정 〉

김종철 : 육군 7사단장으로 재임중.

백종범 :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 그린핀 개발 상용화 임박.

이인재 : 경남 창원에너지 전무로 이동

김준호 : 공인회계사 "최신 중국세법 실무" 편찬

이정희 : 대검(지검장)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

노규영 : 영남대학교 50주년 OB산악회 회장 취임



72회

회장 노태진 총무 김근표·이병규·최성락

〈계성학교 최강 동기회〉라 일컫는 72회는 졸업 30주년을 넘어서는 체육대회 단골 우승팀이기도 하다. 반창회가 활성화 되어 있어 동기회 참여도가 아주 높아 최강 동기회가 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난 6월 17~18일 청도 삼계리 산나들이펜션에서 하계 동기 부부동반 야유회를 시작으로 기수별 축구대회, 10월 총동창회 체육대회에는 많은 동기들이 부부동반으로 참가하여 따스한 동기의 정을 나누었으며 11월 25일 자금성에서 가진 동기회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으로 노태진 동기를 선출하고 2018년을 기약하면서 송년의 밤 행사를 끝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였다.



73회

회장 박선형 총무 박상철·최장렬

요즘 잘나가는 동기회가 아마 73회가 아닐까 동기생들은 생각하고 있다. 2017년 5월에 열린 총동창회장배 축구대회를 우승하는 등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2017년 11월 25일에는 라온제나호텔에서 치러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많은 동기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 졌다. 이 자리에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하는 등 새로운 이벤트로 안전 불감증 해소에 노력해서 동기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이날 2018년도를 이끌어 갈 회장단 선출에 박선형 친구가 봉사하기로 했다.

〈 동기동정 〉 12월 29일 김원태 동기 장군 진급



74회

회장 이성민 총무 박철·이현곤·임익준

2017년은 74회 동기가 계성학교 교문을 나선지 3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로 지난 10월 21~22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문경 소재 STX리조트에서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73명의 친구들이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문경으로 모여 들었다. 먼저 골프를 중심으로 모인 동기생들은 대영베이스에서 골프모임을 가졌고 산행을 준비한 친구들은 가벼운 산행으로 일정을 하였고 저녁행사는 이성민 동기의 사회로 1부 행사를 진행 하였다. 이어서 2부 행사는 방송인 방우정씨의 사회와 초대가수의 공연 등 열띤 분위기로 4시간 여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진한 우정의 장을 가졌다. 이어 22일에는 동기생 전체가 예천 회룡포 전경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별의 아쉬움을 남기고 졸업 후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이제 중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만 정은 새록새록 살아있는 듯하였다. 더욱 더 건강하게 볼수 있도록 약속하며 아쉬운 이별의 정을 나누었다.



75회

회장 김정수 총무 박재우·황선관·장현식

2002년 5월 20일에 창립하여 이중찬 초대회장의 수고로 지금까지 발전해 온 75회 동기회는 2017년 1월 두류해물탕에서 24명의 동기가 모인 신년회를 시작으로 대구 국제마라톤, 등반대회,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등 총동창회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동기생들의 단합을 보여주었고, 특히 10월 열린 가족체육대회에 경품으로 참석을 유도하여 동기 가족의 많은 참석과 단결로 처음으로 Y.B 우승기를 가져왔다. 또한 역대 최다인원 참석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지만 내년에는 졸업 30주년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참석이 어려워 아쉬움을 남긴다.



감사의 만남! 윤위한(45회) 선생님과 75회 10반

75회 10반은 모교 방문행사가 있던 해 처음으로 모임을 가지고 그 후 매년 윤위한 선생님을 초청하여 산행, 회식의 시간을 통해 사제간의 정을 다져왔다. 특히 지난 11월 25일에는 <심심횃집>에서 대구, 서울, 평택, 수원, 울산 등지에서 온 동기생 12명이 윤위한 선생님을 초청, 자리를 가졌다. 이날은 윤위한 선생님의 팔순이 되기도 해서 아름다운 축하이벤트를 연출한 셈이었다.

이날 영원한 실장 오동열(오뎅)은 "친구들이 내년 4월에는 속리산에서, 가을에는 울산에서 만나자. 새 친구를 데리고 오는 회원은 당일 회비를 면해준다."며 폐회인사를 했다.



76회

회장 이용선 총무 김병규·한기상

76회 동기회는 지난해 12월 정준옥 동기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모든 동기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참여한 덕분에 일년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특히 6월 11일 총동창회장배 테니스대회를 주관하였으며 이어 9월 24일 동기단합 골프대회를 안동시 풍천면 고은C.C에서 개최하여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77회

회장 조상우 총무 문학배

2017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지난 12월15일 오후 7시 수성구소재 청통 한우식육식당 에서 가졌다. 먼저 이동엽회장 의 개회선언과 참석인원 보고에 이어 회장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오달현 총동창회 사무총장의 표창패 전달에 이어서 기타 토의 등의 순서를 가졌고 이동엽 회장의 이임사에 이어서 신임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2부 송연회를 가지며 이날 행사를 마쳤다.



78회

회장 홍은기 총무 김진하·유환운

2018년 1월 내당동 정기모임을 시작으로 하여 매월 행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5월 21일 총동창회 회장기 기수별 등반대회에 참여하였고 또한 5월에 열린 기수별 축구대회를 우승하는 기쁨도 가지고 이어 열린 테니스 대회 에도 3위로 입상하였으며 테니스, 등반, 마라톤, 축구대회 등 빠짐없이 참가하는 열정을 보여주며 좋은 성적을 가져왔다.

또한 지속적인 정기모임을 가지는등 결속하는 동기회가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10월에 열린 총동창회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참여와 11월에는 청송 주왕산에서 가을 나들이 겸 단합대회를 가지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12월 송년회를 끝으로 한해 행사를 마무리했다.



79회

회장 박재춘 총무 박재혁

본회는 새롭게 비상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홈커밍 데이 치루지 못한 진한 아쉬움과 선배들의 전통을 지키지 못한 송구함이 앞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3학년 2반 출신들이 뜻깊은 장학회를 설립했다. 서일교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선생님의 아호인 <설곡 서일교장학회>를 설립하여 79회 친구들을 감동하게 했다.



82회

회장 김동욱 총무 권혁태·이태우

총동창회 막내 기수로서 총동창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하고 있다.

2017년 12월 16일 본리동 소재 “도모다찌”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동기 및 가족 85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흡족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수고한 이호림 동기회장에게 총동창회장 표창패 수여식과 2018년도 동기회를 새로이 이끌어 나갈 김동욱 신임회장의 격려를 위해 오달현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동기회 자리를 빛내주었고 특히 총동창회장의 격려 상품과 격려사로 매년 성장하는 82회 동기회에 큰 힘이 되었고 막내 기수로서 후배들의 참여와 앞으로도 동창회의 지원과 격려를 바란다.



지부
소식

LA지부

회장 이태영(62회) 총무 이봉수(65회)

2018년 1월 20일 토요일 L.A 중식당 만리장성에서 가주계성동창회 신년모임이 있었다. 37회 선배님부터 70회 동문까지 부부동반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푸짐한 상품을 놓고 빙고게임을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모임을 진행하였고 교가제창으로 모교애를 되새기며 신년회를 마무리 하였다. 회장 62회 이태영 총무, 65회 이봉수, 70회 백원규 동문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한편 이태영 회장은 모처럼 시간을 내어 1월 24일 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시카고지부

회장 박창호(60회) 총무 이효섭(61회)

2017년 6월 12일 그동안 시카고 동문회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해달(42회) 동문의 은퇴식이 있었다. 이날 참석에는 김광호(56회), 김민수(42회), 이상기(42회) 동문이 참석하여 축하 하는 자리를 가졌다.



재 경산지부

회장 박의순(62회) 총무 김용하(71회)

대구와 근교에 있어 상대적으로 대구권이나 지난 2년간 경산지부 회장을 맡아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권영훈(66회) 동문을 위시하여 많은 동문의 참여로 단합이 잘 되어 있다.

지난 해에는 동문 쉼터를 개소하면서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17년 12월 26일에는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무척이나 차가운 날씨였으나 많은 동문들이 모여서 계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리였다. 개회선언과 함께 시작된 이날 행사는 회장님의 인사말, 선배님들의 덕담과 건배제의로 시작하여 신입회원들의 소개순서, 2018년도 신입회장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의순(62회), 사무국장 김용하(71회), 사무차장 박창현(80회), 김성기(80회)





재 고양·파주지부

회장 윤만웅(63회)

총무 권오윤(65회)

고양·파주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모임인 <계고파>는 1998년 결성되어 그동안 김기범(57회), 김두호(61회) 동문이 맡아서 많은 수고를 하였고 2017년부터는 윤만웅(63회) 동문이 계고파를 열정적으로 맡아서 수고하고 있다. 현재 약 100여 명의 동문이 형제처럼 가족처럼 우애를 다지며 동문의 정을 나누고 있다.

2개월에 한번씩 정기모임과 가족동반, 체육대회, 야유회, 송년회를 가지는 등 항상 가족같이 생활을 함께하고 있다. 조직은 남영철(54회) 고문부터 김민호(85회) 동문까지 폭 넓게 모여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고양·파주는 물론 김포·마포·은평·서대문·강서 등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동문은 누구나 가능하니 적극적인 동참을 희망하고 환영한다.



재 영주지부

회장 장용호(62회)

총무 오성우(69회)

약 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재영주 동문회는 2018년에는 장용호 동문(62회)이 회장으로 추대되어 한 해 동안 동문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1년에 4회 정도 공식 모임을 가지면서 선후배 및 동기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며 가끔 골프와 산행을 통하여 동문회 화합을 위해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장용호 회장은 경북 봉화에서 원에그양계농장 경영으로 우리나라 양계 산업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받는 우수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홍성도 동문은 소백산업을 경영하며 자동차 스텐레스 부품, 운수용 배관 등을 생산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우수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의료계, 교육계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모교인 계성고등학교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먼 발치에서라도 응원하며 계성고등학교가 국가의 큰 일꾼들을 탄생시키는 모태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재 울산지부 회장 최광로(63회) 총무 류시재(70회)

2017년 3월 24일 이기석(64회) 동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40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동문회 첫 행사를 개최하면서 전임 회장단(57회 김진수 전임회장, 65회 정선용 총무)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또한 5월 20일 전 동문이 모여서 중구에 있는 십리대밭에서 동문회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3분기 모임을 9월에 35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우정포차에서 진행하였다. 한해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연말총회 및 송년회를 12월 22일 솔마루식당에서 최광로 회장 외 30명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재 청도지부 회장 안강호(61회) 총무 임형곤(68회)

2017년 11월 23일 청도지부에서는 그동안 수고한 61회 김수길 동문의 회장 이임식이 있었다. 2년 동안 적은 인원으로 소동문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위로하는 자리와 총회를 겸하였다. 이 자리에는 총동창회장 감사패와 청도 동문의 감사패를 전달식이 있었다. 이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61회 안강호 동문의 인사와 함께 참석해 주신 47회 김성광 선생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이날 총회를 마쳤다.



재 청주지부

회장 이재진(62회)

총무 이윤호(69회)

청주지부는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2017년 12월 21일에 정기총회를 가지고 이재진 동문을 회장에 유임시키며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여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지는 등 타지에서 외로움을 날려 보내는 자리를 가졌다.



재 포항지부

회장 김태현(63회)

총무 이율동(72회)

송통제(73회)

장상근(75회)

동해 남부권의 동문모임인 재포항 계성동문회는 번창하던 시기를 지나 줄어드는 회원들이 많아 아쉬움은 남지만 해마다 동문 단합대회 겸 이루어지는 6월 6일 체육대회를 통하여 우의를 다지고 있다.

이날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김태현 동문회장의 필두로 하여 46회 이성환고문을 모시고 조출하지만 성대하게 치러진 단합대회를 가졌다. 지난 9월 28일에는 월례회를 가지고 후배들이 들어오질 않는 아쉬움 속에 더욱더 결속하고 내실있는 동문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지진으로 인하여 12월에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면서 2018년을 기대해보며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계성동문들이 참여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재경지부

회장 전진우(59회) 사무총장 방성욱(70회)

2017년 2월 9일 재경동창회 정기총회를 서초동 L타워 매향홀에서 100여 명의 재경지부 동문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또한 3월 8일에는 광화문에서 고문단 초청 오찬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제갈결 회장 외 원로 동문들이 참석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6월 6일에는 제33회 재경지부 체육대회가 서울시 인재개발원 잔디구장에서 많은 동문이 모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동 6월 12일에는 사단법인 청라언덕 창립기념총회에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냈다.

10월 31일 이천 마이다스C.C에서 제26회 재경동창회장배 기벌대항 골프대회가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재경회원의 화합을 보여주며 내년을 기약하며 이날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재 제천·단양·영월지부

회장 황병섭(69회) 총무 문여찬(80회)

단양·제천·영월 동문회는 20여 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동문회이다.

2018년 2월 28일 새해 첫 모임을 시작으로 회원 모으기 일환으로 제천시내에 현수막 광고로 계성동문모으기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성과가 부족하여 고심하고 있다. 한때는 제천동문회란 이름으로 많은 회원이 참여하였으나 시대에 변화에 제천·영월·단양동문회로 통합하여 회원 배가운동에 열정을 쏟고 있으며, 대구에서 응원 차 방문해 준 배상환 선배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는 한편 단양, 적성으로 귀촌한 70회 김기현 동문의 방문을 위로 삼아 오는 4월 3일에는 부부동반으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계성산우회 20돌을 맞이하다

팔공산과 비슬산을 바라보는 계성동산에서 우리는 함께 배웠고, 또한 우리 계성인은 산을 사랑하고 옛 친구를 좋아하고,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좋아했기에, 그 기백으로 우리는 1998년에 계성산우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축배의 잔을 들고 자랑스럽게 서로를 축하합시다.

초대회장으로는 남창호(42회), 등반대장으로는 유청웅(48회), 총무로는 김정길(56회) 동문님께서 맡으시어 전국 국립공원 명산을 중심으로 땀을 흘리며 올라 호연지기를 느끼며 자연이 베푸는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서울지역동문과 매년 한번 단풍이 드는 가을이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합동산행을 성황리에 거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김덕수, 황성길, 김시우, 박영태, 이정우, 장승환, 정인표, 김칠봉, 이 탁, 오상달등 역대 회장님들의 지도력에 힘입어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소백산 등을 위시하여 수많은 명산들을 오르며 동기생과 선, 후배님들이 어울리면서 건강과 화목과 우애를 다지는 알찬 산행을 매달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4년 백두산 천지 산행에는 56명의 동문이 참여하여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괄목할 만한 기획 산행이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눈꽃산행도 여러 차례 성황리에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봄꽃, 가을단풍 산행, 바위산행, 섬 산행 등 전국의 명산을 찾아 자랑스러운 계성인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물론 때때로는 선, 후배 간의 불협화음이 생겨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은 순풍의 바다로 나아간 배처럼 이재운 동창회장님의 후원과 최근 62, 63, 65회 동기 회장들의 모범적 노력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는 것은 한 사람의 보살핌과 회원 개개인들의 후덕한 생활에서 연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제 1, 2회 계성가족 한마음 산행이 경남 고성 거류산과 문경새재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모교 운동장에서 10대의 관광버스가 줄지어 출발할 때 계성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소속감 속에서 친목과 우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전한 상리동 캠퍼스에서 서울지역과도 합동 와룡산 일주 산행 시에는 새 캠퍼스를 둘러보며 우리 모두의 모교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쏟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 힘든 인생살이의 고비마다 우리는 동산관, 성제관에서 배운 지혜로서 오늘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우회 동문님들은 산을 사랑하시는 만큼 건강하게, 맑은 얼굴과 건전한 사고로 앞으로 20년도 지나 온 20년만큼 열정적으로 친목과 친선을 도모하며 매달 이어지는 알찬 산행을 기다리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성산우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등반대장 이 인 직(60회)

민선구청장 3선(12년)을 마치며



임 병 현 (60회) / 대구 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동문여러분!

먼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재윤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성학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질곡의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인공으로 각계각층은 물론 지구촌 곳곳에 훌륭한 선·후배님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덕망과 패기를 갖고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모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선·후배님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가슴 시린 아픔을 위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보살피는 멋진 선·후배 동문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요즘 세월이 유수(流水)와 같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정신없이 일에 매진하며 살다보니 벌써 공직을 떠날 때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우리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구청장으로서의 임무를 무사히 수행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과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을 체험하고, 실천하면서 구청장으로서 흘린 땀이 밝은 내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문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사업현장에서 더 큰 성취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김희섭 (64회)
수성구의회 의원
(만촌1, 범어2,3동)

핀란드에서 찾은 ‘강아지 똥’



한류 문화와 함께 자연과 인간을 함께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 그림책을 북유럽에 알리는 것은 금상첨화라고 판단



얼마 전 북유럽으로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떠났다. 핀란드 헬싱키의 파실라 도서관, 에스토니아 딸린의 시청 그리고 스웨덴 스톡홀름의 시청과 복합문화 센터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여러 곳에서 연수를 통해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핀란드 헬싱키의 파실라 시립도서관에서의 감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펜을 들게 되었다.

키가 큰 파실라 도서관의 관장은 시원스럽게 도서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특이한 점은 핀란드로 오는 이민자에 대해 핀란드어뿐만 아니라 도서관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하며, 또한 이곳에는 핀란드어 동아리 2개, 에스토니아어와 스웨덴어 동아리가 각각 1개씩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협력해서 이끌어가고 있었다.

자료는 약 40만 개, 약 80개 국가의 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00명 이상의 주민들이 특정 언어의 책을 필요로 하면 그 지자체에서 그 책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그러면서 파실라 도서관내에 한국어 책도 여러 권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꽂이를 보니 주로 오래된 한국어 책이 40여 권 있었다. 그 다음 어린이 코너로 가보니 역시 그러한 한국의 어린이 책이 20여 권 있었다.

그런데 그 때 한 권의 책이 내 눈을 번쩍 뜨이게 했다.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 똥'이라는 책이었다. '강아지 똥'이라는 책을 발견하는 순간, 감동과 함께 저 책을 핀란드어로 번역하여 이 도서관에 비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 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강아지 똥도 민들레꽃을 피워내는 데 소중한 거름이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가르쳐 준다. 마찬가지로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 똥'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다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핀란드의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 핀란드어로 번역된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 똥'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인의 문학적·철학적 관점을 일부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유럽 여러 나라들과 달리 북유럽의 핀란드는 아직도 한국 대중문화의 불모지로 여겨지는데 그런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2016년 10월, 열흘 정도 대규모로 한류축제가 열려 우리의 전통아리랑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비롯해, 한국의 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연주하는 국악그룹 '공명'의 공연이 있었다.

관객들은 처음 대해보는 한국의 가락과 장단 그리고 새로운 악기에 많은 호기심과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인구 약 60만 명의 도시에서 1,200명 정도의 관객이 참여해 한류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한류 문화와 함께 자연과 인간을 함께 소중히 여기는 우리 문학의 한 부분인 어린이 그림책을 북유럽에 알리는 것은 금상첨화라고 판단한다.

핀란드 옆에 위치한 북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은 복지와 교육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앞서가는 나라이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은 노벨상 수상자 또는 단체를 결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이 있는 곳이다.

그런 스톡홀름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여러 도서관에도 스웨덴어로 번역된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 똥"을 비치해 놓으면 우리나라도 노벨문학상을 받을 날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상상일까?

북유럽의 도서관마다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 똥'을 그 나라의 글로 번역하여 비치하면, 북유럽 사람들이 이를 읽고 한국인의 문학적·철학적 관점을 알게 되었을 때 이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영광과 명예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성 기 선 (69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계성의 정신은 ‘관계’이다.

계성학교의 정신을 외부로 알려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배출해야

교육은 매우 중차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일
과거의 강점을 계승하고 미래의 변화를 적극 수용해야

모든 생명체는 생성, 성장, 발달 그리고 소멸이라는 일정한 궤적을 밟게 된다. 우리 주의의 식물들도 씨앗에서 시작하여 따뜻한 햇빛과 수분 그리고 일정한 온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을 토대로 자신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회와 역사 역시 이와 같은 루틴을 따라 가고 있다. 근대 이후 우리는 학교교육이라는 제도의 틀을 인간성장의 기초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전에는 가정이 하던 역할을 근대교육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제도화된 교육기관인 학교가 떠맡아 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6년, 9년, 12년 그리고 16년까지 학교교육을 받는 연수가 늘어나게 되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나라가 되었다.

나에게 계성학교는 어떤 의미인가? 이러한 질문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지난 날 학교 다닐 때의 경험, 졸업 이후의 계성학교와의 인연들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계성학교를 79년 3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다. 고생창연한 아담스관과 푸르던 담쟁이넝쿨, 그리고 우거진 숲과 50계단, 땀내음 시큼하던 유도관 등 계성학교의 체취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학교에 대한 강한 기억의 소재로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축구, 농구, 유도 경기를 보면서 함께 어울리며 응원하던 경험, “해도 잠든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나는 못난이”. 그 때도 그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젠 응원가라고 하기에는 맥빠지는 노래인데, 그 당시에는 열심히도 불렀던 기억이 난다. 변호사하는

친구는 아직도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열창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도 추억의 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여하튼 “우리의 자랑인 계성아!”라고 마치는 교가를 모자를 벗어서 구령에 맞춰 힘차게 노래 부르던 기억들이 아마도 계성인들을 계성인답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계성학교가 이렇게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앞서 열거한 개인적 경험에 기초해서 보면 아마도 그것은 ‘공동체 의식’으로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소속감, 자부심, 공동체, 연대의식,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같은 말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모두 관계(關係)를 중시하고 있다. 개별자로서의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나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동류의식에 대한 공유를 강조한다.

개발연대의 고등학교들은 성적 경쟁, 좋은 대학 진학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상위 30%만을 강조하고 70%는 버리는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를 갖게 되었다. 계성학교도 그러한 차별화 교육에서 완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덜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전교생 예배 활동을 통해서 함께 종교의식을 하고, 교목선생님의 상담활동도 있었고,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고 서로 돕는 분위기도 강했다. 지금도 고등학교 동기들과는 정례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회 각처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서로 모여 각자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차별하지 않는 그 태도와 정신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적어도 계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러한 덕목의 기초를 강하

게 다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라는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효과는 평생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읽은 묵자(墨子)에 “愛人若愛其身”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과 묵자가 친구인 듯 하다. 하여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법,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동반성장을 강조한 묵자의 깊은 성찰을 마주하면서 아마도 계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이러한 정신을 공유하지 않았던가 생각하게 되었다.

관계는 그 말 자체로 수평성을 전제로 한다.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21세기 사회의 특징인 네트워크(network)는 권위, 권력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 누구나 대등한 태도로 임하는 수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성학교의 정신이 오로지 우리의 동문들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제한적인 성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열려 있어야 한다. 폐쇄적인 관계성은 이른바 학벌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 우리 편만 챙기는 문화, 패거리 문화는 전근대적 연고주의를 만들어 나가게 되고, 그 결과 폐쇄적 파벌의식에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된다. 이제 계성학교는 21세기를 당당하게 살아갈 차세대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 기존 질서에 안주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배출하여 이 사회와 국가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차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다. 과거의 강점을 계승하고 미래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두 가지의 기능을 교육은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햇빛과 같은 너의 광채를 세상에 비춰라, 영원 무궁 비춰라! 우리의 자랑인 계성아!”

계성아담스야구단

단장 민창기(74회) **감독** 이영재(82회) **총무** 김병수(82회), 황우민(85회), 권연규(88회)

조선 최고의 스타 야구선수였던 이영민(12회)선배의 후예인 듯 잊혀진 계성학교 야구지만 사실 1923년 이영민 선배가 우리나라 운동선수 최초로 트레이드 된 선수로 기억하고 있다.

여기 정식 교기가 아닌 동호회란 이름으로 졸업생들이 모여 2014년 계성 "아담스야구단"이란 이름으로 결성하고 74회 부터 96회 졸업생 선·후배 동문이 모여 화합과 우정을 나누고 있고 2017년 동호회 대회에 참가하여 창단 첫 우승을 하는 등 활기찬 동호회가 되길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입회를 환영한다.



총동창회 산우회

회장 오상달(65회) **등반대장** 이인직(60회) **총무** 양명환(70회)

2017년 2월5일 경남하동 금오산에서 시산제를 시작으로 한해를 시작한 산우회는 매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명산과 섬을 찾는 등 많은 동문들과 교감의 시간을 갖고 산행에 매진하고 있다. 2017년 12월3일 에는 마산 저도에서 100여명의 산우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산행 및 정기총회를 가지고 이택 산우회장의 이임사 및 신임회장 선출 감사패전달 감사보고 만찬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계성동호회 의 최대 참석인원을 자랑하는 산우회 신임회장에는 오상달 동문이 선출되어 새로운 한해를 이끌게 되었고 새해에도 많은 열정을 갖고 더 많은 동문들이 산우회 행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계성 O.B 축구회

회장 박준모(75회) **총무** 이윤호(93회), 권동현(93회), 정한기(93회)

전통의 모교 계성의 축구의 맥을 잇는 계성동문축구회(계성OB)는 지난 2017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1월 27일은 설 명절을 기념하여 축구를 개최하였는데 강변 축구장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는 9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경기에 앞서 설을 맞아 선후배 동문들이 마주보고 절을 하는 순서도 가져 설 명절의 참 뜻을 새겼다.

특히 지난 4월 4일 비엔나 웨딩에서 귀빈을 포함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가져 본회의 창립 정신과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모교 축구 계성의 정신을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4월 30일에는 우수조기회 초청 교류전을 강변축구장에서 가졌는데 이날 영원FC, 구미 북삼FC 약 150명이 참가했다. 그리고 6월 4일 계성총동창회장이 기수별 축구대회가 강변축구장에서 71회 부터 82회 까지 약 150명이 모여 기량을 겨루었고 8월 11일~13일 하계전지훈련 및 지방팀 교류전을 영해 예주고을 및 영해공설운동장에서 가졌는데 울산 현대자동차, 영해F.C 등 80여 명이 참가했다.

12월 2일 <샤브별곡>에서 40여 명이 참석, 2017년도 송년회겸 정기총회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 했다. 한편 본회는 지난 12월 23일 모교 운동장에 소금을 살포하고 평탄화 작업을 120만원의 예산을 들여 끝냈다.



파크 골프회

회장 최상목(51회) **총무** 김창호(60회)

계성 파크골프회는 2017년 5월17일 무태 강변구장에서 파크골프장에서 많은 회원이 모여 월대회를 가졌다. 본회는 50명의 회원이 매주 3째 화요일 강변구장에서 월례회를 가지고 일년에 두 번씩 타 지역으로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으며 모든 회원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동문들의 참여를 손꼽아 기다리며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파크골프회는 진영국(60회) 동문이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2017 총동창회장배 종목별 기별대회 결과

제25회 총동창회장배 기별테니스대회

일시 : 2017. 6. 11 (일) 오전 9시 / 장소 : 두류테니스장

구분	1위	2위	3위
OB	61회	64회	63회, 65회
YB	75회	73회	71회, 78회

기별 축구 대회

일시 : 2017. 6. 4 (일) 10:00 / 장소 : 강변 인조 2구장

구분	우승	준우승	3위
축구	78회	75회	71회, 76회

기별등반대회

구분	1위	2위	3위
OB	63회	62회	60회
YB	70회	71회	69회

기별 바둑 대회

	우승	준우승	3위
OB (66회 까지)	63회	65회	64회, 66회
YB (67회 부터)	72회	-	-

계성문학회

회장 이원우(54회) **총무** 노태맹(68회)

2017년 12월 13일 약전골목의 한옥국시에서 『계성문학』 제33호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특히 이 번호는 김경동 서울대 명예교수의 논란「고향읽기」를 비롯 특집1. 시적 정의 및 시인의 시간(노태맹, 채형복, 김수상)과 특집2. 역사기행(이수남, 김익환, 정만진)을 엮었으며 이 외에 시, 소설, 동화, 수필 등 회원들의 작품을 담았다.

이날, 이원우 계성문학 회장은 인사말에서 「모든 계성 동문들, 특히 문학회 동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계성문학』은 발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좋은 글을 주신 선후배 동문 작가님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지상 갤러리에 모교 중학교 교감 장영중(69회)동문의 작품을 "우리, 그리운 풍경들"이란 주제로 '11월-강정' 등 14편의 작품과 작가의 해설 '다시 가을소리 바람소리 들린다'를 실었다.



〈홍영사 제작, 국관264면 정가15,000원〉

『**啓聖同窓會報**』 발간에
 협조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총동창회 사무국



이룸(67회) 장편소설 「설리화야 설리화야」

제5회 심훈 문학상 당선으로 등단한 이룸(67회, 본명 이규성)이 두 번째 장편소설 「설리화야 설리화야」를 펴냈다.

이룸 소설가는 계명대학교 재학시절에 이미 <제20회 계명 문화상>을 받은 바도 있으며 첫 창작집 『핑크 하우스』와 장편소설 『갯바위』를 출간한 바 있다.

지은이는 작가의 말을 통해 운명을 따라 지난 45년 동안 경북과 대구에 뿌리를 내려 직업인과 작가 생활을 병행하고 있다며 70년대 대구 지역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지역과 여러 인물들에게 작게나마 보은이 되기를 빌어 본다고 밝히고 있다.



『설리화야, 설리화야』 도서출판 카프카 / 국판346면 / 정가 12,800원

개교 111주년기념

총동창회 회원명부 『啓星人』 제17호 발간

2018년 3월 계성중·고등학교 동창회 인명부 『계성인』 17호가 발간 되었다.

매년 5년을 주기로 발간된 인명부는 점 점 까다로워지는 개인정보법으로 인하여 발간이 쉽지 않은 가운데 간행되었다.

『계성인』 17호는 1회 졸업생부터 104회 졸업생까지 그리고 직장, 직능, 지역별 인명부가 수록되어 있다.



『계성인』 17호 / 금성출판사 / 4×6배판 1158면,
별책부록 『직장, 직능, 지역별 명부』 4×6배판, 308면 정가 50,000원
(구입문의 : 동창회사무실 TEL.053.255.3900)

계성학교 총동창회 기별 친선 골프대회 및 고교동창 골프대회 선수 선발전



골프를 즐기는 동문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통한
동문화합과 애교심을 높이기 위하여
총동창회 이재운 회장님과 동문님들의 협조로
대구 컨트리클럽에서 기수별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각 기수 회장단 및 골프동호회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장소 : 경산 대구 컨트리 클럽

1. 기수별 참가인원 제한없음
2. 자세한 대회요강은 별도 공지예정

준비위원장 : 서태교(65회)

준 비 위 원 : 김진걸(65회)

준 비 위 원 : 박상식(66회)

준 비 위 원 : 오달현(69회)

준 비 위 원 : 정희원(73회)

문의 : 총동창회 사무실 053-255-3900



계성학교의 3년을 회고하며... 되새김



주 태 민 (105회 졸업) / 학생회장

떠나려 하니 더 애뜻하게 느껴짐은, 비단 연인의 이별 뿐 아니라 정들었던 모교와의 그것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눈 깜짝하니 졸업이라고, 시간이 참 빠르다 이야기하지만 내겐 더디고도 긴 삼년이었다. 지나간 과거를 지나치게 좋았다고 포장하고 싶지 않다. 아픔이 있었던 만큼 성장했기에 아픔은 당당하고, 그 아픔을 곱씹지 않으면 그 이상의 성장은 없을 것 같기에 찬찬히 되새겨 보려한다.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 감히 “누구보다 찬란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스로를 자책했던 시간이었다고 감히 말해본다. 남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던, 어른인척 하는 아이. 그게 바로 나였다.

보란 듯이 계성고등학교에서 빛나고 싶었기에 간절함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시간들이었다. 고등학교 지원을 앞두고 난생처음 부모님의 의견에 반(反)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학교 삼년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특목고 입학은 나의 변덕 앞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 변덕은 이상하리만큼 매혹적이었고, 말 잘 듣는 ‘착한 딸’의 변덕이라 더욱 충격적이었다. 부모님의 반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고등학교에 다

니고 싶다”는 호소뿐이었다. 어쩌면 특목고 입학을 눈앞에 두고 겁이 났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도피처를 찾으려 했을 수도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계성고등학교는 내게 도피처였던 것 같다.

입학하고 몇날며칠은 우울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계성고등학교 역시 특목고와 다를 바 없어보였기 때문이다. 수능형 인재를 키울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 현실을, 조금은 늦게 알아차리고 조금은 빨리 받아들였다. 현실에 직면하며 고등학교 커리큘럼이 어땠든 간에 내가 ‘주’가 되는 생활을 하기로, 학생과 입시의 경중이 뒤바뀌어도 나만큼은 주객전도되지 않기로 다짐했다. 고등학교에 더 잘 어울리는 학생이 되기 위해 입학한 것이 아니고 내게 잘 어울리는 고등학교를 찾아 입학한 것이니,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잘 이용해보기로 했다.

학교는 ‘수능만점자를 배출해낸’이라는 수식어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서 나는 자주, 아주 많이 혼났다. 나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것을 궁금해 했고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선생님들의 쉬는 시간을 빼앗았다. 때로는 너무 깊이 있는 것을 질문했고, 때로는 너무 동떨어진 것을 공부했다. 선생님들은 조용히 나를 불러내서 이야기하곤 하셨다. 태민아, 공부방법이 잘못된 것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던,
어른인척 하는 아이

내게 어울리는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내가 발전했듯이,
필요하다면 변화하고 발전하길 스스로에게 바라본다.

같아. 아껴주시는 마음은 정말 감사했지만, 그런 조언들이 '프레임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 같아 갑갑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학생의 자율을 중요시하는 학교분위기는 내가 계성 고등학교를 사랑하는 이유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부를 할 때는 프레임 속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혼쫓이 났는데, 학교활동을 하려고 보니 프레임 자체가 없었다.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분위기다. 학생회장을 맡으며 내게 주어진 엄청난 자율권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다. 수학공식, 고전시가, 영단어가 아닌 오직 '일' 생각으로 뇌를 가득 채우던 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생생하다. 뇌가 빠근한 느낌은 정말이지 처음이었다. 특히, 축제를 준비하던 나날들. 일초도 쉴 수 없었던 축제 준비기간의 긴박함과 축제의 막을 내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던 순간은 훗날 어른이 된 주태민이 두고두고 술자리에서 이야기할 안주거리임이 분명하다. 듣는 이의 반응 따윈 아랑곳 않고 스스로가 가장 빛나는 순간을 반추하는, 어른들의 무용담처럼 말이다.

모든 순간이 진땀날 정도로 무게감 있었지만 동시에 감사하고 뿌듯했다. 입학하고 나서 내가 새롭게 경험한 것들을 읊으려면 -과장 조금 덧붙여서- 하루를 꼬박 새워도 모자랄 것이다. 학생의 본분은 학업이라고 귀에 박히도록 들었음에도 나는 자율을 만끽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다녔다. 거의 모든 활동에 참여했었다. 참여에 의의를 두지 않고 성장에 의의를 두었다. 내가 성장할 만한 활동이라 판단되면, 몰두하고 매진했다.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워서 '말하기 대회'에 참여했고, 영어가 두려워서 '영어 에세이쓰기 대회'에 참여했다. 논리력이 부족한 것 같아 '토론대회'에 참여했고, 배우고

싶어서 무작정 모의유엔 사무총장에 지원했고, 용기가 부족해서 학생회장에 출마했다. 친구의 용기가 내 부족한 용기를 채워주기도 했고, 제각각 가진 개성이 뭉쳐 나의 부족한 능력을 매워 주기도 했다. 활동을 한 단계씩 발전해나갈수록 나는 선봉장보다는 윤회율 역할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다. 뭐 하나 뛰어난 게 없음에도 친구들이 나를 찾아주는 것은, 톱니바퀴와 톱니바퀴가 맞물릴 때의 불협화음에 윤회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마땅한 자리가 없어 나의 이름을 가장 위에 둔 것이지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같은 건 계성고등학교에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나는 전달할 뿐이었다. 학생회장에 도전하며 "먼 훗날, 학생회장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장이 이끈 그 한 해가 기억에 남도록 하겠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지켜졌을지 모르겠다. 먼 훗날이 되어봐야 알 수 있으려나.

자신감을 얻기 위해 늘 도전했지만, 대학 입학을 앞둔 지금도 난 겁쟁이처럼 오들오들 떨고 있다. 98% 장전된 계성인의 2%가 되겠다고 했었는데, 남들 채워주다가 내가 2%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가끔 생각했었다. 요즘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그러면 또 어때, 난 치열하게 살았고 만족스러운데. 밀도 높은 2%면 되지'

앞으로의 여정 역시 '주'가 되는 인생이길. 내게 어울리는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내가 발전했듯이, 내게 어울리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변화하고 발전하길 스스로에게 바라본다.

발걸음을 재촉해야겠다. 더 이상의 도피는 없고 정면 돌파뿐이다.

Own School News

모교소식



문학기행



신라시대 최치원선생 열이 서려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인 상림공원은 사계절을 통해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다수의 문화제와 함께 넓은 잔디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문화휴식의 체험장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입시와 공부의 피로감에 시달리는 현실에 문학기행을 통해 문학작품의 배경과 폭넓은 탐구생활, 역사의 이해 등 정서적인 함양에 많은 이해와 도움을 주듯 사제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부활절 대수양회



계성학교에 입학하면 전통의 큰 행사 처음으로 맞이하고 매년 이어지는 “대수양회”가 재학생의 소통과 만남의 장이된다. 지난 4월 14일 그 일 “부활, 예수 다시 사셨도다”라는 주제로 대신동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는 내일교회에 시무하시는 송선관목사 장선규강사의 해석이 가미된 성경설명과 재치있는 명강의와 찬양으로 재학시절 기억과 좋은 경험을 쌓는 대수양회가 되었다.

체육대회



2017년 5월 2일 본교 운동장에서 지·덕·체를 고루 갖춘 계성인이 되기 위해 매년 체육대회 한마당을 통하여 계성인이라는 자부심과 단합 선·후배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친구들간의 우정도 키울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 하는 화합의 장이자 축제이다.

장학생과의 만남



이재윤 계성학교 총동창회장의 장학금 기탁으로 선발된 '장학생과의 만남' 행사가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덕영치과병원에서 이재윤 총동창회장, 유철환 고등학교 교장을 모시고 류창렬 본교 국제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재학생과의 만남의 행사는 이재윤 총동창회장님의 인사말씀, 유철환 교장선생님의 답사, 장학생 대표의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오찬과 다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선배와의 만남 - 이정동(73회) 서울대 교수



2017년 8월 31일 목요일 상리동 성명교회에서 본교 재학생 1, 2학년이 참석하여 “찾는다는 것”이란 주제로 명사초청 특강이 있었다. 강사로는 이정동(73회) 동문 강사로 초청되어 후배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한편 이 동문은 “축적의 길” 저자로서 현재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축제 <계성제> 행사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사인 지난 12월 27~28일 이틀간 대신동, 상리동 두 곳에서 105대 학생회(회장 : 주태민) 주최로 각 동아리와 반별부스, 강당 등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마련한 각종 음식, 페이스페인팅 등과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특히 대신동 강당에 마련한 성가 합창과 복면가왕가요제 등이 재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한편 총동창회에서는 처음으로 재학생 축제에 일부 찬조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많은 동문들의 후원과 관심이 선·후배들과의 가교적 역할의 구심점이 되길 않을까...

수능응원 디너 콘서트



2017년 12월 26일 수능을 앞둔 선배들을 응원하고자 1·2학년 후배들이 콘서트를 마련하였다.

올해 4년째를 이어 오고 있는 이 행사는 개교 111주년을 맞아 111명의 관현악단으로 이루어져 수능을 앞둔 선배들을 격려했다.

선배와의 만남 - 박화진(69회) 경북경찰청장



“숭고한 헌신과 봉사” 박화진(69회)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현 경찰교육원장)이 2017년 5월19일 모교를 방문하여 강의주제다 30여 년간 초임시절부터 경찰 공직에 근무하며 세상을 드러다본 경험과 사람이 사는 곳은 차가움보다 따뜻한 온기가 많다는 경험론을 이날 재학생 후배들 에게 전달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 나가길 당부했다. 그의 저서 “마음이 따뜻한 경찰이 되고싶다”에서 어릴적 살아온 모습 과 현재이 이르기 까지 삶의 표현을 담은 글처럼 후배들에게 전파하는 좋은 시간을 가지며 기념촬영 을 끝으로 강연을 마쳤다.

중·고등학교 졸업식



2018년도 졸업식이 2월 8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대 신동(중), 상리동(고)에서 거행되었다. 개식사, 찬송, 성경봉독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졸업장 및 재단이사장, 동창회장상 및 각종 상장을 수여하고 축하, 스승의 은혜,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든 교정을 떠나는 아쉬움을 달래며 이날 행사를 마쳤다.

2018학년도 대입 합격현황

(2018. 2. 23)

수도권 대학		지방권 대학	
대학명	인원	대학명	인원
서울대	3	부산대	14
연세대	9	경북대	54
고려대	14	한동대	8
서강대	10	영남대	73
성균관대	16	계명대	66
한양대	7	금오공대	2
중앙대	12	기타지방대	55
경희대	10	전문대	8
한국외대	8		
서울시립대	5		
이화여대	2		
서울과기대	1		
건국대	12		
기타수도권	52	중용대총수	76
총계	161	총계	280

고등학교 교장 이·취임식



2018년 2월 27일 상리동 모교 시청각실에서 고등학교 교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6년간 제직한 19대 유철환(63회) 교장의 후임으로 현창용(전 교감) 교장의 취임식이 이날 거행되어 앞으로 2년 동안 모교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이 날 현 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계성인을 길러내고 인재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현창용 교장 약력

학력

1976. 2. 9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83. 2. 25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경력

1978. 11. 15~1981. 1. 31 군복무
1983. 3. 16~2007. 2. 28 계성고등학교 교사
2007. 3. 1~2012. 7. 31 계성고등학교 부장교사
2012. 8. 1~2018. 2. 28 계성고등학교 교감

포상

1998. 5. 17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2008. 5. 15 대구광역시 교육감 표창(2회)
2013. 5. 15 대구광역시 교육감 상장
2013. 9. 27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 상장
2017. 2. 24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상장

-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계성동창회보〉 구독료 납부현황

(2017. 3. 1 ~ 2018. 3. 10)

성명	기수	금액(원)
이 성 환	38	500,000
김 경 호	39	50,000
이 기 수	40	10,000
손 덕 영	41	50,000
이 준	44	50,000
최 기 웅	45	30,000
김 정 국	48	20,000
이 춘 섭	49	20,000
노 태 교	51	20,000
설 형 식	51	20,000
한 무 길	51	10,000
서 정 환	52	20,000
김 시 우	52	110,000
56회	56	20,000
박 정 찬	60	200,000
합계		1,130,000

(재)계성장학회 장학기금 납부현황

(2017.3.1 ~ 2018.3.10)

성명	기수	금액(원)
이 춘 섭	49	200,000
류 승 왕	59	800,000
진 영 국	60	1,000,000
합계		2,000,000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명	기수	대상	일자
김 상 영	31회	본인상	12.11
김 흥 근	40회	본인상	4.9
우 정 택	41회	본인상	9.11
장 영 철	42회	부친상	6.13
박 치 호	44회	본인상	11.11
류 성 천	44회	본인상	11.19
황 대 근	44회	부친상	1.1
서 식 희	44회	부친상	10.7
김 종 기	46회	본인상	11.28
정 승 기	51회	모친상	18.2.6
이 주 영	53회	모친상	7.28
김 종 태	53회	본인상	9.19
정 봉 규	54회	본인상	9.4
최 정 태	54회	모친상	10.1
박 찬 희	56회	부친상	7.19
이 원 영	56회	모친상	6.1
김 동 철	56회	장모상	8.3
이 용 두	58회	부친상	8.12
김 규 환	58회	모친상	18.1.26
김 학 송	59회	본인상	6.15
홍 정 근	59회	본인상	7.6
김 연 욱	60회	본인상	5.22
김 재 희	60회	장인상	10.2
정 두 섭	61회	장모상	5.9
장 역 덕	61회	부친상	5.28
홍 상 익	61회	본인상	5.29
이 박 용	61회	장모상	6.1
유 진	61회	모친상	8.16
윤 치 원	61회	장모상	8.3
이 현 식	61회	본인상	9.18
김 종 태	61회	본인상	9.19
권 순 달	61회	부친상	11.1

성명	기수	대상	일자
전 남 석	61회	모친상	3.29
김 도 형	62회	본인상	12.5
박 창 현	62회	부친상	18.2.6
우 영 철	62회	부친상	6.1
장 덕 원	66회	부친상	8.12
정 덕 원	66회	부친상	9.7
문 종 석	68회	모친상	7.19
손 원 배	68회	모친상	18.1.5
양 경 준	68회	모친상	12.9
박 점 복	68회	모친상	7.23
문 종 석	68회	모친상	7.19
남 동 호	69회	모친상	15.2.6
한 문 화	69회	모친상	18.2.17
김 동 섭	69회	장인상	5.19
김 진 용	69회	장인상	7.2
이 범 희	69회	본인상	10.2
박 원 영	69회	모친상	11.14
추 쌍 엽	71회	모친상	4.5
박 영 준	71회	모친상	11.8
김 기 환	72회	장인상	12.1
김 동 환	72회	부친상	11.19
신 재 흥	72회	모친상	11.7
신 현 달	72회	장인상	10.7
공 유 상	72회	부친상	9.17
안 상 호	72회	모친상	9.18
조 효 래	72회	부친상	10.29
강 용 남	72회	장인상	12.29
민 경 훈	72회	부친상	12.26
이 규 익	72회	장인상	11.2
신 규 봉	72회	모친상	10.7
김 태 동	계성교육재단이사장	본인상	18.2.6



계성중·고등학교총동창회

www.keisung.or.kr

啓聖同窓會報 는 동문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啓聖同窓會報가 동문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계성동창회보는 총동창회 활동소식 이외에도 각 기수별, 지역별, 직능별, 해외 동문회 소식 등을 동문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문 개개인의 동정(승진, 이동, 개업, 경조사 등)과 그리운 모교소식,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동문들의 폭넓고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모교와 총동창회의 가교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성동창회보는 2019년 64호에도 계성인들의 편안한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성동창회보> 발간은 동문 여러분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소식에 대해 총동창회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회보에 게재되어 동문 상호간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 발 비켜서서 지켜보던 동문들도 각 기수별, 동회회 별 활동상을 보며, "나도 한번 참석해 볼까?"라는 참여 의욕을 높일수 있을 것입니다.

소소하거나 아주 개인적인 소식도 좋습니다. 계성동창회보는 여러분들의 소식을 채워가는 공간입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차명과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독료 입금도 기다리겠습니다.



- ▶ 기별 / 지부별 / 직능별 / 동회회 소식
- ▶ 자유기고
- ▶ 동문동정(승진, 이동, 개업, 경조사 등)
- ▶ 추억의 사진 및 기타 게재를 원하는 내용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 기고와 칼럼을 게재해 주실
동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보구독료 (1년 20,000원)

대구은행 1906-1906 / 신한은행 01906-1906-1906 예금주 : 계성학교 총동창회

▶ 회·보·자·료·접·수·처 ◀

계성총동창회 사무국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811호(대신동, 계성빌딩 811호)
TEL. 053)255-3900 FAX. 053)256-4942 E-mail : keisung1906@hanmail.net
홈페이지 : 계성학교 총동창회 www.keisung.or.kr

소유하고 계신 계성학교 관련자료(사진, 글, 기타 자료)를 총동창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美)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신일 그레이스성형외과의원

☎ 상담 및 예약문의 : 053)422-1144

대표 **이 신 일** (76회)
(총동창회 부회장)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23, 2F(동성로2가)
FAX. (053)422-1145
E-mail : lovlyj@dreamwiz.com



삼성디지털프라자 황금점

지점장 **이 응 준** (82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10 TEL.053-761-8789

오랜 기간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심사 및 쟁송
 FTA컨설팅, AEO지원과 운송업무 등
 관세 및 무역관련 **TOTAL SERVICE**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세법인 고려

대표관세사 **박 정 호** (5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8길 50, 명남B/D 2F(대곡동)
 TEL : (053)293-1000 FAX : (053)751-5522
 C·P : 010-3558-1176 E-mail : 1155pjh@daum.net



계성사랑 대리운전

- ▶ 동문 가족분들을 항상 안전하고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 ▶ 전직원 100% 보험가입업체 입니다.
- ▶ 요식업(식당, 노래방,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시거나, 신규 개업을 하시는 분은 계성사랑 대리운전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콜센터

053) 768-1991

080) 768-1991



대표자 : **한 정 훈** (58회)

Mobile : 010-9131-4555

E-mail : junghoon51@hanmail.net

비수술적 통증 전문 클리닉



Better life Without Pain
길통증의학과의원



전문의 **길 태 영** (8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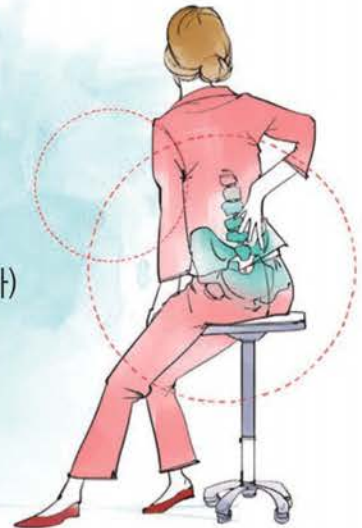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288 (수성동 1가)

TEL. (053)745-1175

FAX. (053)744-1675

MOBILE. 010-3373-2663

E-mail. nirvana74@naver.com



개업/칠순/결혼/동창회/각종 행사타올 전문

그린타올랜드

송원 **SW** 타올

영신타올
YOUNG SHIN TOWEL CO

신광타올

대표 **조 병 현** (7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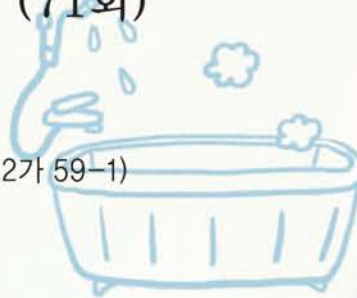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07(서문로2가 59-1)

TEL : (053)256-5007

FAX : (053)256-5077

Mobile : 010-6253-5007

E-mail : towel77@hanmail.net



"계성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구 경북 고품격 장례 종합서비스
소중한 고인의 천년을 담아내는 곳



문중, 개인납골당 도매 **명혁**

대표 **김영호** (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0, 1층(만촌동)

TEL : (053)745-9920 FAX : (053)745-9920

C·P : 010-3826-9200 E-mail : funeralcenter.co.kr

요양에서 추모까지

www.goodj.co.kr

● 후불제 상조란?

기존 선불식 상조 상품의 경우 상품구성에 고객이 맞춰야 하는 단점과 미리 돈을 내기 때문에 부도, 폐업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후불제 상조는 미리 돈을 내지 않고 장례발생시 상담후 유가족에 맞게 상품을 설계하므로 거품을 뺀 금액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시 계성학교 동문님께 드리는 혜택

- 1) 협력요양병원 이용시 할인 혜택
- 2) 협력장례식장 이용시 50%~10% 할인혜택(대구 모든 장례식장 가능)
- 3) 1회용품 200인분 무료제공
- 4) 대구 관내 무료 운구
- 5) 1급 장례지도사 3일동안 장례진행 및 입관진행
- 6) 24시간 장례 상담 가능

● 계성한마음장례의전에서 하는 일

장지건설팅(납골당, 수목장, 공원묘지 등)
이동식 뷔페, 도시락(장지, 체육대회 등)
산역, 개장, 이장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계성한마음장례의전

의전본부장 **김 병 규** (76회)

"계성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0길 12(성당동, 청산서점 2층)

TEL : (053)655-8398 C·P : 010-5556-8396

고운 미소, 건강한 미소
아름다운 미소를 드리겠습니다.

원장 반 용 석 (69회)
(총동창회 부회장)

임플란트 / 심미보형 / 치아교정

www.bansdental.com



경북 경산시 중방동 863-8 경도빌딩 5, 6층

TEL : (053)812-2875 / 815-0014

뽕뽕이 곱창

대표 홍 진 중 (59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36길 71-2

TEL : (053)623-5115

Mobile : 010-3515-5535, 010-9357-9292

♣ 위치 : 안지랑 곱창 골목 ♣



선일세라믹스주식회사

친환경 세라믹볼 전문 기업
~선일은 환경솔루션 분야의 전문가 그룹입니다.~

회장/대표이사 **손 병 갑** (64회, 총동창회 부회장)

(국제로타리 3700지구 2017~2018 총재)



(주)성도 · (주)선일인바텍 · 선일종합수처리(주) · 선일세라믹스(주)

여러분의 건강한 삶, 아름다운 삶, 나아가 완벽한 삶의 조화를 위해
미리안산부인과가 노력하겠습니다.

www.mirian.net

"계성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MIRIAN 산부인과·소아과의원

원장 **이 인 수** (69회)

☎ 진료문의 : **054.441.2277**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서로 2길 31(원평동) C·P : 010-4525-1247 E-mail : leeis63@naver.com



ISO 9001 / ISO 14001 인증제품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카운터 센서 조명절전 시스템

botem 카운터센서
www.botem-e.com

에너지 세이빙 스위치

조명등 자동점멸 시스템
자동소등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

대표 **김진걸** (65회)

대구시 동구 경암로 790-72 101호

Mobile : **010-2533-6331**

TEL : 053)939-6331 FAX : 053)939-6332



 **센서마스터**
SENSOR MASTER

카운터센서 총판점

www.magformers.co.kr



상상하고 만들고,
상상하고 만들고 생각의 힘이 달라졌어요!

THANKS, MAGFORMERS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지금 3차원 입체자석교구 맥포머스로 3D두뇌 트레이닝을 시작하세요.
맥포머스는 전세계 60여 개 나라의 아이와 엄마들에게
사랑 받는 글로벌 창의력 교구입니다.

맥포머스 3D두뇌 트레이닝, 창의력의 힘이 자랍니다.

2017 브레인마스터세트
TV홍쇼핑 절찬 판매중



THE GLOBAL LEADER IN MAGNETIC CONSTRUCTION TOYS

MAGFORMERS®

한국짐보리(주)짐월드

한국짐보리(주)짐월드 대표이사 박기영 (68회)



3D Brand Award
by Chosun
Newspaper



Academy
Choice Brain
Toy Award



Creative Child
Award Top
Toy of the Year



D.C. Toy's
Best Classic
Toy



GLOBAL
AWARDS



Toy of the Year
Educational
Finalist



Copenhagen
Toy Portfolio
Platinum



Made by Mums
Toy Awards
Silver



Toy of the
Year Best New Toy



[의류 도·소매]

SHINHWAKOREA

MOST OF MAJOR DEPT. STORES IN SEOUL

“세계적인 의류브랜드를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주)신화코리아는 고객 여러분의 품위를 더욱 돋보이게 할 전문화된 머천다이징과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추구하는 수입패션 명품 기업입니다.”



대표이사
회장 이 인 식 (53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1 (대치동)
TEL : (02)562-6536 FAX : (02)554-9830
C-P : 010-2725-2663
E-mail : islee@shinhwakorea.com



계성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www.shinhwakorea.com



We go together!

자동차 도어무빙시스템 전문기업 평화정공은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정공은 인류의 더 나은 미래와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내실 있는 품질경영과 최고의 기술력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김 상 태 (58회, 총동창회 부회장)

주요 관계사

PHC Valeo
평화발레오
PHC Valeo
카렉발레오
PHC
에이엑스티
PHC Edscha
피에이제이엑이 애자

공장 및 연구소

국내 본사 및 연구소
수원연구소
성서공장
이현공장
성주공장
외동 1·2 공장
아산 1·2 공장

Asia

국외 PHA Beijing Co., Ltd.
Taicang Pyeonghwa Automotive R&D Co., Ltd
PHA Taicang Co., Ltd.
PHA Yancheng Co., Ltd.
PHA Chongqing Co., Ltd
PHA India Pvt. Ltd. / R&D Center

Europe

PHA Europe R&D Center
PHA Czech s.r.o.
PHA Slovakia s.r.o.

America

PHA Body systems, LLC
PHA USA, LLC

본사/R&D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392

Tel: 053.350.6114

Fax: 053.350.6106

GLOBAL NO.1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Global No.1의 큰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풍산

그 세계적인 경쟁력과 함께
첨단소재산업의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박 우 동 (56회)

PONGSAN 풍산그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정로 23 풍산빌딩
Tel. 0212278-6700 Fax. 0212278-6790



(주)풍산홀딩스 · (주)풍산 · 풍산특수금속(주) · 풍산네오티스(주) · (주)풍산화동양행 · (주)풍산메탈서비스 · (주)풍산FNS · (주)PNT

구병원은 24시간 열려있습니다

24시간 외과 응급수술, 5대암·일반건강검진 지정병원

업그레이드 된 의료서비스, 전문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치료성과는 대장항문전문병원 구병원의 자긍심입니다.



구자일 (65회) 이사장 병원장 (총동창회 부회장)
서태교 (65회) 이사(재단사무국)
이재형 (68회) 수석부원장
석강수 (78회) 계장 (영상의학과)

진단에서 수술까지 원스톱 진료시스템
싱가폴, 대만 우수병원 의사들이 연수오는 전문병원

진료과목

외과,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특화센터

종합검진센터, 성인병·암검진센터,
대장항문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유방·갑상선암센터

부설기관

장례식장



지정기간 | 2015.1.1~2017.12.31 지정기간 | 2014.4.3~2018.4.2